



201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일시 2012년 10월 10일(수) 오후3시
장소 서울 YWCA 마루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토론회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 일시: 2012년 10월 10일 (수) 오후 3시
- ▣ 장소: 서울 YWCA 1층 마루공연장
- ▣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사회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 발제

1.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 전희경(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오빠는 필요 없다’ 저자)
2. 공동체 성폭력 ‘이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
 - : ‘공생의 조건’ 교육 프로그램 사례
 - 이선미(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토론

1. 공동체 성폭력,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부터
 - 나영정(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상임연구원)
2.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토론문
 - 란(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3. 우리는 공유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성화(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목차

▣ 발제

7P I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전희경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오빠는 필요 없다’ 저자)

51P II 공동체 성폭력 ‘이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

: ‘공생의 조건’ 교육 프로그램 사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토론

87P 1. 공동체 성폭력,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부터

나영정(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상임연구원)

93P 2.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토론문

란(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99P 3. 우리는 공유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화(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발제 |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전희경(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오빠는 필요 없다' 저자)

발제 I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전희경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오빠는 필요 없다'저자)

성폭력, 누구나 반대하지만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나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주의 운동이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제기한지 오래 되었는데, 왜 여전히 피해자의 고통은 '사회적'으로 이해되지 않는가. 가해자는 왜 한결같이 억울해하며, 그 억울함은 왜 그토록 쉽게 지지받는가.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여 해결하려 해왔던 오랜 노력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는 현실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특히 사법제도가 아닌 공동체 내부의 규칙과 제도들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에 초점을 두어 왔던 공동체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현실을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것이 전부'라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의식의 공유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¹⁾

1) 이 글의 주된 논지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하는 연구 프로젝트 속에서 고민을 공유하고, 2회에 걸친 비공개 집담회와 10명에 대한 심층면접, 내부 토론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의 산물이다. 2회에 걸쳐 이루어진 비공개 집담회에는 정당, 노조, 사회운동단체 등 여러 유형의 조직에서 활동하는 동안 여러 건의 공동체 성폭력 사건을 목격, 지원, 해결해 온 경험을 지닌 여성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심층면접은 지지자/대책위/대리인/해결책임자/피해자 등 다양한 위치에서 공동체 성폭력 사건을 경험한 사람 1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들이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글 말미의 <표1>에 명시하였다.) 집담회와 심층면접은 참여자 및 면접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녹취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선택, 배열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집필한 것은 연구자의 책임이며, 기탄없는 토론을 기대한다.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 '공동체' 문제로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 나아가 조직 전체의 현주소를 다시 묻고 여러 겹의 복잡한 고민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일이다. 이로 인해, 성폭력 문제에 대해 매뉴얼화 할 수 있는 '간단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떤 면에서는 그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나름의 전략을 세워 나가려는 태도를 공유하는 노력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대한 현실적인 곳에서 출발점을 찾고, 최대한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야와 해안을 나누었으면 한다.

1. 문제제기

상처. 그거 말고 진짜로 뭐가 없어요. ... 약간 경각심 같은 게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는 했겠으나, 그거 말고는...

모임이 실제로는 그 사건 이후 재편되었어요. (...) 공동체가 파괴된 거죠. (...) 큰 조직은 성폭력 사건을 드라마하게 잘 해결할 수 있지만 작은 조직은 굉장히 파괴되거나 이런 경험인 것 같아요. (...) 음... 성폭력이 나쁜 거고 성희롱은 나쁜 거야 라면서 조심하는 상황까지는 온 것 같은데, 조직에서 이를테면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 이거 해결 잘 했다', 그런 사례를 본 적도 없고. <사례8, 대책위활동>

저는 나름 그쪽으로 고민하니까 좀 변했겠죠. 근데 가해자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가해자와 그 단체는. (...) 이런 문제가 음... 어떤 조직 내에서 한 발을 내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줄 하나 그어지는 정도.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마무리 되는,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쉽죠. <사례5, 피해자>

(1) 왜 공동체에 주목 하는가

이 글에서 공동체는 정의(justice)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을 지칭하고자 한다. 이 때 ‘정의’의 구체적 내용은 계급 정의, 국제/민족적/지역간 정의, 평화-생태적 정의, 민주주의, 인권, 평등 등 다양하며, 그러한 가치에 대한 동의 수준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집단’의 형식과 규모 역시 학생회, NGO, 주민조직, 노동조합 등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들이 공동의 가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의와 어느 정도의 자발성에 의한 결사체라는 점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가령 직장 내 성폭력이나 지하철 성폭력, 거리에서의 성폭력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을 초래하며, 사건 해결 양상도 다르다.

공동체 내 성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신뢰’이다. 그것은 정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동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는 조직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나아가 그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해온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동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많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조직 내부에서 공론화하는 쪽을 택한다. 개인-개인 또는 국가-개인의 관계 속에서 건조하게 다루어지는 법적 해결보다, 공론화를 통한 공동체 관계 속에서의 해결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선택지로 고려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성폭력 사건은 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무수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 위기를 잘 다루지 못한 경우,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절차는 다 끝났는데, 달라진 건 별로 없고, 피해자는 탈퇴하고,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책위에 참여했던) 우리에게 이건 공동의 트라우마인데, (...) 같이 대책위 했던 친구는 꿈에 가해자랑 만났는데 악수를 하자고 해서 악수를 했는데 손이 부러졌대요. 꿈속에서. 저는 그때 한참 시달릴 때는 가해자가 ‘오랫만이야 하면서 칼을 쏘 (베는) 꿈을 꾸고 그랬었어요. <사례8, 대책위 활동>

저는 공동체 내부의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친족 성폭력이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감정의 결을 따라 갔을 때 친족 성폭력도 유대감 있는 사

이의 성폭력은 되게 다른 식의 상처를 남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기들이 어떤 식의 공동체다, 동지다, 되게 끈끈한 유대감이 있는데 이걸 해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 애를 되게 벌하고 싶지만, 벌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 사실 혼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깔끔하게 혼내주는 것은 아니고, 아빠를 어떻게 잡아가라고 하겠어?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괜찮다고 한 마음을 말을 바꾸고 이 사람이 두 배의 분노로. 그 때 네가 말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지금 와서 말하면 소용없고. 그런 식으로. 피해자도 자기 감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힘들고. 아니면 내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저 선배가 나를 아는 사이기 때문에 더 순순히 인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쁘게 나오고 나를 더 고립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의 역동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건 기대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더 틀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사례 10, 피해자/대책위>

공동체 성폭력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사건도 해결과정도 조직 문화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친밀성을 나누는 언어와 행동, 허용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사이의 경계,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인정의 기준, 조직체계의 구조와 일상적 놀이 문화, 시간과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 등등 - 이 모든 것이 '조직 문화'를 구성하며, 이 모든 것 안에 젠더권력이 스며들어 있다. 일상에서 용인되어 왔던 행동, 눈빛, 말들은 불편하고 억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 내고, 그러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사건'으로 촉발된다. 그 어느 곳에서보다 공동체 성폭력에서, 성폭력은 '사건'이기 이전에 조직의 남성 중심적 문화의 누적이다. 어떤 면에서 공동체 성폭력 사건은 '조직 문화'가 허용해 왔던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그러한 '사건'을 낳은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과 변화에의 요청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수잔 브라이슨이 지적했듯,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피해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다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브라이슨, 2003).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을 경험한 공동체는 균열이 드러난 관계, 무너진 신뢰, 입장의 엄청난 차이, 상황 대로 상하고 지친 감정들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re-building) 법을 배워야만 한다.

피해자들이 아는 사람이면 문제제기 못하다가 쌓여서 쌓여서 나중에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제기 되는 거죠. ‘왜 한 2년 동안 괜찮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냐.’ (...) 친한 사이니까 ‘왜 그래, 그러지마’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문제제기까지 해야 하는 거냐, 무슨 의도가 있어서?’ <사례2, 대리인/대책위>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은 조직문화 문제라...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욕설이나 이런 게 통용되지 않는 문화이면 욕설로 인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자기들 검열 자체가 명확한 사회면. 그리고 내가 존중받기 원하듯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면 사실은 성폭력이 일어 날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운동권 사회가 그렇지 않으니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면 ‘왜 우리 운동사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가 됐는지’ 다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나는 뭘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지 (성찰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주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분 좋게 해야 한다는 (생각), 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지가 동지에게 욕하는 걸 그냥 두고 넘어가고,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 하는데 뒤에서 덤석덤석 안는 거를 ‘그냥 원체 저 동지가 그래’ 그렇게 넘겨온 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이런 일로 평평 터지는 건데, 그리고 내가 어떤 동지가 그렇게 했을 때 ‘하지 마, 기분 나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 사실은 방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례2, 대리인/대책위>

저는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토론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 피해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 보는 것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이 종이 한 장으로 공지가 끝나잖아요. 근데 공지 이후에 구성원들이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공지 후 사후 애프터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한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감정들이 막 나오는데.. 공동체 안에서 사건이 꼬이게 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되게 상처를 받고,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다 서로간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다스려 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사례10, 피해자/대책위>

(2) 왜 ‘공생의 조건’을 고민 하는가

함께 살기(공생) 위해서는 공생을 선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화해, 용서, 평화, 회복, 치유 같은 말들에 대해 냉소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연구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공생’은 이유 없는 화해, 강요된 용서, 평화를 가장한 문제 봉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성폭력 이후에도 삶은 지속된다는 것,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균열된 공동체 안의 ‘사회적 관계’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해결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사건은 이야기되고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한 고민이다. 일단 어떤 성폭력 사건이 문제화되고 나면, 공동체는 일정한 ‘해결 과정’을 지나 절차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 도달한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실험과 시도, 노력들이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성폭력 사건을 겪은 공동체는, 그 사건을 ‘없었던 일’로 삼는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해결절차 진행 도중에 공동체에서 탈퇴하거나 사라지는 것, 혹은 사건해결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복귀하지 못하는 것은 그 ‘회복되지 않음’의 분명한 반증이다. 신뢰의 붕괴에서 오는 피해자의 고통은 신뢰의 복원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으며, 신뢰는 공동체 안에 과거와는 다른 관계의 질서가 모색될 때에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과거와 다른 주체가 되어갈 때에만 재구축될 수 있다. 신뢰의 재구축은 공동체의 재구축이기도 하다.

정확한 성찰, 이유 있는 분노,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성폭력과 그 해결 과정에서의 ‘부정의(injustice)’를 감각/인지할 수 있는 평균적 감수성 자체를 높이는 것. 그 ‘부정의’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동시에 다시 ‘정의’를 추구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격려하는 것. 사건 해결 절차 ‘이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과정에서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상황들 :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의 사회적 문제화가 시작된 지 30년이 가깝고,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의 가해자 실명공개운동이 있는 지 10년이 넘는 현재. 그 동안 공동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지난 백여 년 동안 한 번도 격변의 시기가 아닌 적이 없었던 한국사회에서 ‘변화를 개괄’한다는 것은 언제나 미진하고 부족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길게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활동 과정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과, 짧게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집담회와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 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거친 스케치를 그려 보고자 한다.

우리는 ‘사건 이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았다 : 가해자는 징계와 가해자교육 이수를 거치면서 변화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확인되는가? 확인 없이도 절차가 이행되고 나면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까? 성폭력 사건을 공적으로 다룬 공동체는, 사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 - 성폭력의 문제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사건 해결 절차의 맹점들을 보완하며, 공동체 전반의 성 평등 감수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전보다 성폭력 사건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가? 피해자는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안, 더욱 자기 힘을 지닌 사람이 되고, 상처를 삶 속에 통합해내고, 인간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안전감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응력 / 조직 내에서의 협상력이 더 높아졌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최근 몇 년간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우리는 10년 전에 비해 변한 것들,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다.

첫째, 성폭력 사건 해결과 관련한 절차와 제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다. 사건 해결 절차가 제도화되고 그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매뉴얼’이 정착된 것은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절차들이 절차가 형식화되어 가는 경향 역시 발견된다. 절차가 형식화된다는 것은, 혼

히 말하는 ‘진정한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되기보다 그 자체가 목표가 되거나, 절차 ‘만’ 완료하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의미다. 절차가 만들어 진 역사와 섬세한 의미들이 휘발되어버리면, ‘해야 할 일 다했다, 더 이상 뭘 어찌라는 거냐’는 반발 앞에 피해자와 지지자들은 할 말을 잃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여전히 힘들고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간단한 원칙으로는 되지 않고. 사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열어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 원칙이라는 게, 너무 협상력은 없고 다 칼 같은 기준이잖아요. <사례10, 피해자/대책위>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건 묻혀진 문제가 된 거고. 그냥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 꺼내고 있지 않을 뿐이지 라는... 그냥 이런 느낌이 강해요. <사례1, 지지자(대책위 격)>

둘째, ‘안다’고 착각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폭력이나 성폭력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 해결, 대리인 세우기, 지지모임 조직, 2차 가해, 가해자 징계, 공개 사과...”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봤고 익숙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많은 구성원들은 ‘안다’고 생각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 평등 교육은 늘 뒷전으로 밀린다. 그러나 막상 성폭력 사건이 터지고 나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공허함을 깨닫게 되며, 중요한 타이밍과 해결과정에서 있어야 할 지점들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심층면접 과정에서 만난 많은 여성 활동가들은 입을 모아 ‘여전히 잘 모른다’고 진단한다. 피해자의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공동체의 명예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은 여전하며 (조직보위론, 조직 내 해결 원칙, 외부에 알려지면 ‘쪽팔린다’는 인식 등), 어떤 구조와 문화와 관계와 언행들이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옹호/방치하는지, 그래서 반성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 ‘여전히 잘 모른다’는 현실은, 공동체에 대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높은 기대치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피해자/지지자들에게 더욱 경악스럽고 실망스러운 현실로 경험된다.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 너머서를 체험해 보거나 학습해보거나 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주의를 공부해도 입문 정도만 잠시 하다보니까... <사례3, 지지자>

저는 의견피력 안하고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정말 의심했었어요. ‘정말 모르는 걸까,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이랬었어요. 그런데 실제 만나서 몇 시간 씩 이야기해보면 정말 백지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일 년에 한 두 번씩 하는 교육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를 느꼈죠. (...)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진상조사를 하러 온 사람인지, 진상조사위원회를 교육시키러 온 사람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폭력에 대한 관점도 없고. 이 사람들부터.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부터 투쟁인 거예요. <사례2, 대리인/대책위>

셋째,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성폭력 낙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 사건 해결 과정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주의 운동은 오랫동안, 그리고 최근 집중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괴물’로 만드는 식의 담론에 대해 우려와 경계를 표현해 왔다. 최근 몇 년간 언론에 기사화된 아동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가해자는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와 이에 따른 정부의 ‘강력 대책’ 발표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공권력과 정보통제력만을 비대화하고 성폭력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봉합해버리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공동체는 (글의 서두에서 정의했듯이) ‘정의’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움직이는 조직이며, 그 만큼 ‘일반 사회’나 ‘회사’ 보다 ‘진보적’일 것을 기대하고, 기대 받는다. 이 과도한(?) 기대가 성폭력적 문화보다 성폭력 가해자 개인을 색출, 제거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묵인하는 은폐물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어떤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성폭력의) 수위를 떠나서 그냥 '성폭력 가해자'라는 호칭이 얼마나 큰 낙인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해자한테 직접 이야기는 못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 사람(가해자)을 죽이려는 거냐' 이런 호소연들을 (하는 거죠). <사례2, 대리인/대책위>

넷째, 여성주의를 '권력자'로 느끼는 반여성주의적 착시 현상과 사회 전반의 반격(backlash)이 문화적 기저에 흐르고 있다. 여성주의 단체/발언자/담론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감각하고 발언하는 것. 그러한 피해의식 속에서 "성폭력만은 아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상황은 암묵적 지지를 얻게 된다.²⁾

딱 그런 프레임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물학적인 성별 자체가 나를 가해자로 만드는... 나는 그것이 싫고, 근데 나는 변할 수 없고. 그렇다고 거부할 수는 없지만, 뭔가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식의 거부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도 먼저 귀를 닫아버린다든가 이런 것 같고. (...)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서 나누는 구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페미니스트에 대한 적개심. 보수들이 진보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순간 얼어버리고 사고가 경직된 거 같은 이런 분위기가 제일 큰 장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사례9, 지지적 해결자>

위와 같은 상황들은 결국 두 가지 진단으로 수렴된다. 첫째, '원칙과 절차'만으로는 너무 불충분하다는 것. 둘째, 사건(절차적 종결) '이후'에도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 '절차와 원칙'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임에도 그간 공동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논의는 '절차와 원칙'에 집중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자/지원자들의 역량에 온전히 맡겨져 왔다. 절차'만' 있는 상황, 그나마 있는 그 절차도 너무 험겁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가증될 수밖에 없는 갈등과 상처들은 절차 종결 이후에 의식적

2) 많은 가해자들이 성폭력이라고 명명되는 순간 완전 '아웃'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들 중 정말로 '완전히 아웃'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고 체계화된 모종의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절차 ‘이후’에 대한 고민 역시 구체적으로 논의가 모아지거나 그 방법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진 적이 아직까지는 없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개입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공생의 조건’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3. “공동체 내 성폭력 문제”를 다시 생각 한다

(1) "사건 해결의 원칙"을 다시 생각 한다

1)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무엇일까?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진심으로 오랜 기간 반성하고,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던 과정을 성찰하고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러한 과정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책임 있게 주시하고 규제/독려하는 것.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왜 고통이 되는지를 충분히 경청하고 지지하며, 피해자가 다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공간/문화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여성주의 감수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삶 속에 의미 있게 통합시키고 과거보다 한층 더 힘 있는 주체가 되어 가는 것...〉 - 만약 이것이 성폭력 사건의 ‘진정한 해결’이라면, 한발 더 나아가, 이것만을 ‘해결’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해결’되는 성폭력 사건은 (적어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 반문은 좌절과 무력감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성폭력적 ‘문화’의 변화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과거 ‘성폭력 개념 확장’이라는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은, 한편으로는 그 동안 ‘문제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문제화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화’의 언어를 단순화/단일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즉,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억압, 무시, 배제, 타자화, 대상화, 괴롭힘, 폭력이 ‘광의의 성폭력’으로 간주되면서(“성폭력 개념 확장”), 남성권력을 문제화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이 개발되지 못하고, 문제제기하려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피해자만 문제제기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여성주의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gender violence)으로 설명해 왔으며, 이러한 설명 속에서 ‘문제적 성’과 ‘정상적 성’, 공간과 섹스 사이에는 분명하고 질적인 구분선이 없다. 이는 성폭력의 연속선(continuum) 개념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Bart ; Kelly). 또한 ‘성폭력 개념 확장’이라는 슬로건에서 보듯이 반성폭력 운동은 ‘정상적 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향하고 문화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런데 ‘문제적 성’과 ‘정상적 성’이 연속되어 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우리는 이 ‘연속선’을 다룰 수 있는 언어와 전략을 갖고 있는가?

실제 공동체 성폭력 사건들을 보면, ‘절차가 끝났으면 해결’로 보는 입장(“더 이상 뭘 어쩌라는 말이나”) ‘피해자의 요구안이 100% 관철되어야 진정한 해결이다’(“아직도 피해자는 고통 받고 있다”) 라는 입장의 양극단 사이에서 ‘최고로 썸 가해자 징계’가 ‘사건해결’과 등치되고, 절차 이후의 문화적 변화는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나 이유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의지적 망각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비어 있는 것은 절차의 종결과 사건의 해결 사이, 사건의 해결과 사회적 변화 사이 - 이 ‘사이’들을 잇는 논의/담론/자리/모임/구상/전망이다. 이 ‘사이’들이 촘촘한 고민과 논의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성폭력과의 싸움은 가부장제와의 싸움이 되어 버린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에게, ‘성폭력 개념 확장’이 아니라 ‘성폭력 이외의 개념 확장’, ‘다양한 고통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귀의 확장’, ‘다양한 성별권력과 일상의 애매한 폭력들

을 문제제기하는 여성주의 세력의 확장'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2) '피해자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와 효과

여성주의 운동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피해자 관점'은, 2000년 말 100인위 운동을 기점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로 번역되어 공동체/운동사회 안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실제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혹시, '피해자가 말의 형식적 권위는 독점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부담을 전담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라는 대로 한다(했다)"는 조직의 수동성이 조장되어 온 것은 아닐까? 나아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이 실제로 구체적인 개별 피해자들에게 사건 '이후' 더 많은 힘, 더 많은 주체성, 더 많은 운신의 폭, 더 많은 협상력을 갖게 해주는 방식으로 실행/작동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한 일종의 동질감 내지 옹호하는, 그런 게 여전히 있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 피해자보다 더 가까워. 피해자가 약자잖아. 약자를 더 보호하고 위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해자하고 더 가까워.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전 아직도 의문형인데요. (...) 저 사람은 워낙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좋고 한데 이걸 잠깐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가해자하고 일종의 동일시하는 이게 있어요. 그에 반해서 피해자하고는 왜 가깝게 가지 못할까? 남성 여성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왠지 모르게 두려움, 공포감?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상당히 있어요. [육 먹을까요?] 네.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도 안에 있어요.(...) 가해자 복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왜 피해자 복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마음이 안 가는 거야, 우선. 그게 잘못된 거죠. 피해자 치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평소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사례4, 지지적 해결책임자>

피해자의 치유와 보호, 그리고 복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조직한테 내놔라 라고 했을 때 (...) 굉장히 어려웠죠. 막막했죠. 왜냐하면 저희 규정 안에, 다른 규정들은 처리방안이나 그런 게 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없어요. 그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는데 (...) 우리 안의 규정에는 일단 없

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기해주는, 조직 안에서 얘기하는 목소리도 별로 없고. <사례4, 지지적 해결책임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은 모두가 암기하고 있는데, 막상 사건이 공론화되면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는 공백 상황에 처한다. 유일하게 이 공백상황을 메우는 것은 ‘피해자의 요구안’이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피해자의 요구안을 100% 다 받아들일 것인가? 뭐든지 피해자 뜻대로 해야 하나?’ 라는 식의 논쟁이 튀어나오곤 한다. 하지만 반대로 질문해 보자. 피해자가 문제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가?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되는가?

피해자의 요구가 모든 해결의 구심점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피해자가 말의 권위는 독점하지만, 그만큼 입지가 좁아지고 내용적이나 심리적으로는 무력화 되는 상태에 빠지기 쉽다.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조직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당신은 계속 힘드냐?” 라고 질문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 멋대로주의’라는 끔찍한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실질적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 공동체의 변화 없이, 피해자의 치유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시작과 끝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좋은 절차가 아닐 수 있다.

(피해자에게) ‘니가 뭐가 필요하니? 너를 위해서 대책위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공동체 문제가 아니게 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령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이 변했을 때, 이것이 왜 개인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문제인지 설명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집담회, NGO 활동가>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해결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과거와 달라지고자 하는지, 그 지향이 토론되고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한 변화의 지향이 분명하

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의 사건 해결’이라는 슬로건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수동성을 방치/조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변화의 지향에 대해 문제화하지 않은 채, 개별 사건마다 끊임없이 피해자를 향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치적 부담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실제로는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피해자 마음대로 다 된다’는 식의 권력화 착시를 일으켜, 반여성주의(anti-feminism)적 반격의 확산에 일조한다. 성폭력 사건에 직면한 공동체가 ‘변화의 지향’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때의 논의는 ‘공적’이라 말해지는 조직 체계와 절차 속에서의 논의와 ‘사적’이라 말해지는 인간관계 및 일상적 대화 속에서의 논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³⁾

(2) 절차와 규정을 다시 생각한다

1) 비밀주의 원칙 vs. 정보 불균형이라는 문제

내규 등의 절차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라는 원칙은 피해자 보호와 2차가해 방지를 위해 주장되고 관철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비밀 유지’의 영역과 방식이 무관단적으로 확장되면서, 실제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대한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데 있다. 주된 요인은 무엇보다 가해자들의 행동력이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남성동맹을 구축하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가해자 버전의 사건 개요’를 유포한다.

저도 내부 사람이지만 저한테도 정보가 다 열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조직 안에서 논의되는 거 정도였지,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누구도 모든 진실을

3) 공동체 내 성폭력을 문제화하고 잘 ‘다루기’ 위한 노력들이 기존의 공/사 구분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법학연구자 장임다혜와의 개인적 토론에 도움을 받았다.

100%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예요. 당사자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4, 지지적 해결책임자>

도대체 이게 뭐냐.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남성간의 광범위한 동맹. 이게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서 한 간부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가해자 쪽은 엄청나게 움직였다, 심지어 자기한테까지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 근데 피해자 쪽에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 제가 또 한번 깨달은 거예요. <사례4, 지지적 해결책임자>

가해자가 제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방법들로 자기의 지지자를 모았어요. 아... 화가 나네요. 그 생각이 나니까. (웃음) (...) 일단은 정말 깜짝 놀랐는데, 남자 분을 먼저 매수를 하더라고요. 남자의 리더, 그 공동체의 가장 큰 분을 바로 컨택을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일단 (더 낮은 단계의) 리더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는 그거보다 더 위의 나이 많고 남자인 사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권력자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 분한테 전화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 시각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했죠. <사례6, 피해자>

이처럼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남성동맹을 구축하고 선택적 정보를 유포하는 상황에서, ‘비밀 유지’ 원칙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와 가해자의 목소리 사이의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가해자는 얼굴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무엇이 왜 힘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왜 필요로 하는지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 나가려면 완전 동의하는 적극 지지층이고만 싸울 수 없잖아요. 뭘 싸움이든 광범위한 지지층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참 어렵긴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더 어려워요. 이해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일반 싸움 그렇게 나가면 그 간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나가면서 너무 좁은 테두리 안에 스스로가 갇혀 있다는 느낌. 그게요, 어떤

거든 당사자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서 지평을 넓히고 가야 하는데 그 지평, 이 안개를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낼 수 있는 사람조차도 손발을 다 짜르게 하는 게 지금의 반성폭력 운동의 문제 중 하나죠. <사례4, 지지적 해결책임자>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피해의 회복과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느 정도로 피해자를 지지하는 여론/세력/움직임이 만들어지는가이다. 그러나,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세력’이 만들어지고 확장되기는 어렵다. 피해자 신원 보호와 비밀 유지는, 영원히 모두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밀 유지’에도 다양한 수위가 있을 수 있으며, 지지자들에게도 가해자의 이야기에 반박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이 결국 특정 문제행위와 그 문제행위를 발생시킨 문화에 대한 의미투쟁의 과정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2) 대리인은 무엇을 ‘대리’(해야)하는가?

‘피해자 대리인’은 모든 공동체 성폭력 사건에서 ‘무조건’ 만들어져야 하는 위치는 아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무조건’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히 규모가 크고 조직 체계를 갖춘 공동체에서의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순식간에 확장되는 논의의 장과 절차상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피해자 대리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이 대리인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호소한다. 그리고, 많은 대리인들 역시 ‘대리인 역할’이 초래하는 심적 갈등, 피로감, 감정적 상처, 좌절과 불안을 호소한다.

물론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저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어요. (웃음) <사례6, 피해자>

(제가 피해자 대리인을 맡겠다고 했을 때, 다른 여성 활동가가 말리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대리인을 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걸 본인이 못 느낄 뿐이지 꽤

오래 간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직접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덜할지 모르겠는데, 대리인은 피해자도 아니면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의견이 아닌, (때로는) 내 의견과 다른 피해자의 의견을 말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더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당시에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하고 나니 어쨌든 스스로 자괴감에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그와 아픔을 공감해서 충분히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한 거지만, 내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정이나 아픔이나 스트레스를 100% 알 수는 없어서, 계속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피해자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나?’, ‘내가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가 직접 아픔을 토로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해주고, 그의 잘못이 아니니까 자기 얘기를 직접 하게 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례2, 대리인/대책위>

대책위원이나 지지모임 구성원과는 달리, ‘대리인’이라는 이름은 피해자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더욱 무거운 기대와 책임을 기꺼이 떠안는 뜨거운 연대의 이름이다. 하지만 바로 이 점으로 인해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적절한 조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거리 설정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또 한편, ‘대리인’이 사건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피해자’가 논의의 장에서 한 발 비껴 서있게 되거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기도 한다. 대리인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확인, 섬세한 한계설정들과 합의가 필요하다.

제가 고민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과연 피해자가 얼마만큼 참여하는 과정이 있는 거냐.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로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 전달받고 전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도 실제 절차적인 것 외에는 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눈에 보이는 게 징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절차적인 것들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게 과연 뭐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그런 문화나 생각들이 바뀌어야 결국은 피해자도 자기가 명예가 회복된다거나 또는 ‘자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구나, 이걸 통해서 어쨌든 일종의 뭐라고 할까, 자긍심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공동체 내에서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당사자(피해자)도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피해자도 공동체의 일원이었거든요. 근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집담회, 노조 활동가>

피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관계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익명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는데... 뭐 나영이 사건도 그걸 사람들이 나영이 사건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피해자가 자기랑 관계있는 누군가일 때만 그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피해자는 익명이고 가해자는 실명이잖아요. 익명의 피해자보다 실명의 가해자에게 훨씬 더 동정적인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 그건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 보호이지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사례10, 피해자/대책위>

대리인의 역할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가감 없이 얘기해야 해서 피해자가 상처 받을 자리면 그 정도는 대신 참석하고, 그 외 자신의 피해를 얘기한다든지, 조직에 호소를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이런 자리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 물론 상처도 받겠지만 치유도 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는 각오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3자처럼 뚝 떨어져서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르고 결정도 못하고 굉장히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례2, 대리인/대책위>

대리인은 피해자의 ‘아바타’가 아니고, ‘엄마’도 아니며, ‘변호사’나 ‘귀마개’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 오히려 대리인은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갖는 공익적 성격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피해자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매 순간에 함께하는 가장 긴밀한 의논자, 피해자가 격리되거나 무력화되거나 무대 뒤로 숨겨져 ‘이미지’화 되지 않도록 돕는 가장 유연한 조력자, 피해자가 사람들과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창구로서 역할 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주체화는 상치되는 가치가 아니다. 한편으로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어떤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주체화는 피해자가 (기회만 주면) 뭐든 할 수 있는(해야 하는?) 존재라는 의

미가 아니다. 한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는, 그의 ‘타고난 능력’의 문제라기 보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을 격려해왔고, 지지하고 있으며, 누가 존중과 경청의 태도로 피해자와 관계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결국, 다시 한 번, 공동체가 성폭력 사건을 겪으면서 변화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 변화의 일부로서, 그 변화를 추동하면서, ‘대리인’은 유연하게 자신의 활동 범위를 미세 조정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3) 관행화 된 피해자 요구안의 의미와 역사에 대한 질문

현재 “매뉴얼처럼” 또는 “관행처럼” 제시되는 피해자 요구안의 전형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실명공개 혹은 공개사과, 제명/활동정지 등의 조직적 징계,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 등). 하지만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래 의미가 왜곡되거나 추상적으로 암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구안은 논쟁과 고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지나치다’, ‘왜 하필 이걸 요구하나’, ‘이 요구안이 다 관철되지 않으면 이 사건 종결 못 짓는 건가’ 라는 의문은, 사건 해결 과정을 겪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사적인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이유는 다르지만) 지지자나 대리인의 마음 속에, 심지어 피해자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의문 부호와 함께 메아리치곤 한다.

사건이 일어나면 활동 정지 뭐 1년, 3년 이런 것이 관행처럼 생겼잖아요? 관행처럼 가이드라인이 생겼어요. 그 뒤에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복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례4, 지지적 해결책임자>

(가해자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빨리 이걸 털고 활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다 밟았어요. 가해자 프로그램도 받고 반성문도 썼는데, 그 반성문의 진정성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거부했거든요. 근데 조직에서는 거기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가해자는) 계속 2년 한 번씩 선거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 조직에서는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냐,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 마음 같아서는 ‘아...그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운동적으로나 이 사건이 정말 올바르게 해결되려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례5, 피해자〉

만약 가해자에게 ‘2년간 활동 정지’라는 징계가 결정되었다고 하자. 2년이 지나고, 가해자는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지지자들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으므로, 혹은 다른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지자들을 기만했으므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조직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가해자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냐, 영원히 활동 그만두라는 거냐고 반문한다. ‘이제 좀 그만 했으면...’ 이라는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그만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가해자가 보낸 ‘2년’의 징계기간 동안 흐른 피해자의 ‘2년’이다.

여기서 관건은 ‘그 2년이 어떻게 흘렀는가’ 라고 본다. 공동체의 ‘평가와 기억 공유’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복권이 이루어졌는지, ‘너무 심하다, 이제 그만해라, 빨리 용서해라’ 라고 다그치는 조직 내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설득 또는 억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애초에 피해자가 제시하고 공동체가 수용했던 ‘피해자 요구안’의 내용/방식/시점 등은 재협상될 수 있다.

당시에는 일벌백계, 거의 그런 분위기. 다 때려가지고 다 한 번에 파내자, 빨리 자르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여서. (...) 다 일괄적으로 최고의 징계를 줬는데, 그러고 나서 조직이 변했다면 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건이 터지고. 이걸 너무 ‘우리가 훌륭한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실제로 구성원들이 상황에 근거하기보다는, 좀 그런 식의 정치적 액션이 아니었을까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사례10, 피해자/대책위〉

특히 환기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요구는 그 자체가 상황 속에서 구성되며, 또 변화한다는 점이다. ‘요구안’의 상황의존성(situatedness)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 여부와 분위기에 따라 ‘요구안’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변화가능성을 기억하지 않을 때, ‘왜’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시키고 실질적인 공동체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진다. 공동체가 한 사건을 통해 혁명적으로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피해자의 의견이라는 게 그때 상황에서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대리인 외에 제대로 전문단체가 뒤에서 해주면 (좋죠). (...) (지원한 여성단체에서) 계속 저의 마음을 삭혀 주셨기 때문에, (요구안이) 너무 too much 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요. 신뢰했기 때문에. 저에게 항상 ‘맞다고 얘기 안 해 주신 게 신뢰가 오히려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딱 정확하게 짚어 주시는 거. 저를 불쌍한 피해자로 보시고 ‘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얘기만 했으면 전 아마 신뢰하지 않았을 텐데. 쓴 얘기도 저에게 쉽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례6, 피해자>

가령, 실명공개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무조건 최고수준의 징계(‘제명’)를 하면 가장 잘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탈권력화하고 피해자의 활동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명’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이다. 징계의 수위는 매뉴얼화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건의 의미’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깊이 공유되었는가가 더 관건이다. 가령, 제명을 했다 하더라도 ‘왜’ 제명하며, 제명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어떻게 재정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등이 구성원들에게 공표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가해자 징계의 수위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정치의 문제에서 도덕의 문제로 전환되어 버리기 쉽다. 성폭력 사건 해결이 정치가 아니라 도덕의 영역이 되면, 사태는 피해자의 치유, 공동체-다시만들기, 성폭력의 예방과는 가장 거리가 먼 방식으로 흘러 갈 우려가 높다. 사건공개 역시 (‘공론화’라는 말 뜻 그대로) 공적 논

의의 대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뜻이지, 공적으로 사건을 ‘전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논의가 부재하다면, 그 논의를 통해 구성원들 개인의 변화와 조직 문화 전체의 변화가 촉발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사건 개요가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을 ‘공문화’라 부를 수는 없다.

같은 유형의 성폭력 피해라 해도 피해자 마다 필요(need)가 다를 수 있으며, 그가 놓인 상황, 그가 갖고 있는 자원과 한계에 따라 그 필요를 공적인 ‘요구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피해자도 주변 상황과 지지/조력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숙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구안이 사적(私的) 복수가 아니라 공적 문제제기일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숙고’의 시간과 계기는 꼭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요구안이 어떤 구체적인 필요 때문에 제기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 과정 역시 필요하다.

(3) ‘2차 가해’를 다시 생각한다

2차 가해는 되게 유효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형사고소 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가해자 부인이 울고 찾아오고, 이렇게 해 갖고 합의종용을 하잖아요.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피해자 관점과 2차 가해를 같이 봤을 때, 피해자의 의사 그대로 100% 다 받지 않으면 2차 가해다, 이걸 좀 과한 것 같거든요. (...) 저는 2차 가해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 가해적 행위인지. 그런데 많은 경우 2차 가해가 논쟁이 되는 경우는 그런 거였던 거죠. 이 사람이 피해자와 다른 협상안을 가져왔을 때 2차 가해라고 한다거나, 내지는 사건을 듣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거나,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말했다는 것도 악의적으로 소문내고 유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친구한테 말했다, 이런 것도 2차 가해라는 거는 사실 좀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차 가해를 말하려면 이 행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의 피해를 남기는가가 정리되어야만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례10, 피해자/대책위>

애초에 ‘2차 가해’라는 이름은 왜 필요했었고, 무엇을 ‘가해’하기 때문에 문제 삼아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성폭력적 문화’, 피해자 비난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즉 공동체의 남성중심적 질서와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바로 이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며, 특히 구체적인 사건 해결이 진행 중일 때는 매우 공허하게 들리기 쉽다. 조두순, 김길태, 나주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열렬한(?) 반응과 정부의 ‘강력한’(그러나 매우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대책이 수용되는 상황이 보여주듯, 구체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성폭력적 문화 바꾸기’를 제시하는 것은 무력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추상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공동체의 가해자중심 문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2차 피해’가 아닌) ‘2차 가해’라는 명명이었고, 나아가 2차가해‘자’의 지목과 처벌이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2차 가해를 하지 않기 위해’라는 문구가 조직의 수동성, 구성원들의 침묵을 정당화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핑계거리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은 침묵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2차 가해가 될까봐 침묵한다고 주장하는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에서, ‘2차 가해’라는 단어에 담고자 했던 문제의식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2차 가해‘자’들만 속출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결국 난무하는 억울함들 속에 사건은 산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돌파구를 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각심이구요. ‘내가 조심해야지. 말 잘못하면 찍히니까’. 부작용으로 ‘내가 찍히면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안해요. 대부분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 반성폭력 운동 평가도 한번 해보아야 하는데, 어느덧 마음의 문을 다 닫게 만들었어요. 2차 가해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사건 해결을 위해서 참 어렵게 조직 안에서 고군분투를 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쌓아왔던 성과가 있고. 그 반면에 ‘이제는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다 있으면서 아예 말을 안 섞으려 하구요. 오죽했으면 제가 처음으로 여성 담당자 되어서 어떤 간부를 집회장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악수 하잖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네, 00조직 여성담당자로 있어요” 했더니 손을 딱 빼면서 “다시 뵈실 일 없겠네요”...〈사례4, 지지

적 해결책임자)

2차 가해자도, 초기에 그런 뜻(가해자 지목이 아니라 가해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에서는 이제 양상하게 2차 가해만 남아있는 거죠. 2차 가해로 걸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문제제기 하기도 전에 갑갑한. 2차 가해로 안 된다고 저도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례4, 지지적 해결책임자>

‘2차 가해의 문제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그런 것들을 핑계로 논의를 없애 버리거든요. 정말 2차 가해가 걱정되어서 말을 줄이는 사람이면 다 표시 나고, 그걸 이유로 논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표시가 나는데, 대부분 후자에 속하니까. <사례2, 대리인/대책위>

당시에 조직 내에 여성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주로 이런 문제들을 토론하고 모임을 하고 그랬죠. 굉장히 활발하게 됐죠, 그 두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폭력 논쟁을 그 때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나서지 않는 남성분들도 조금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도 여전히 성폭력 하면 말 잘못하면 2차 가해로 찍히고 쉬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더 지배적이긴 했어요. (...) 정말 바뀌어야 할 윗세대의 남성 선배들이 오히려 더 쉬쉬한 거죠. (...)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성폭력, 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사건 있을 때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런 게 더 많죠. <사례5, 피해자>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과 ‘사건에 대해 폭력적/문제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말할 때 ‘누구로서’ 말하는가이다. 사건의 외부자로서, 구경꾼으로서, 논평자로서, 중립적이고 싶은 자기욕망에 충실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직면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말해야 한다. 이는 성폭력 사건 ‘이후’에 공동체 안에서 촉진되고 격려되어야 하는 정체성과 포지션, 가치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2차가해’라는 개념이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하는 데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말들이 나와야 하고, 그것이 성폭력을 개인화/사사화하지 않고 공동체의 공적/공동적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출발점이다. 물

론 이미 알다시피 그 ‘더 많은 말들’의 상당 부분은, 경험적으로, 기존의 잘못된 통념을 반복/강화하는 탓에 사건 해결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 책임론, 피해자 사생활 유포 등을 통해) 피해자를 공격(비난, 훈계 등등) 함으로써 상황에 몰타기하거나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곤 해왔다. 이러한 피해자 공격을 방지하면서도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해당 공동체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모색되어야 한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1) 사건 해결 과정이 갖는 의미와 위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

: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연루된 ‘의미 투쟁의 과정’이다.

이 글에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을 ‘피해자 vs. 가해자’나 ‘피해자 요구안 vs. 조직의 수용/불수용’의 구도가 아니라, ‘의미화 vs. 의미훼손’이라는 틀로 이해해 보자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어떤 공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발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미 투쟁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행실과 몸가짐과 조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간주하고 그런 인식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의 문제라고, 피해자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지나치게 무감각한 것이라고, 농담/칭찬/말실수니까 봐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비하/모욕/대상화/굴복시키려는 행동을 ‘정상’이라고 용인해 온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해자/동조자/방관자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로 그 ‘의미’를 훼손하고자 해왔고, 경험적/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의미 훼손은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은 재차 삼차 훼손된다.

문제는 ‘의미화 vs. 의미훼손’의 첨예한 대립각과 시급성과는 달리, 공동체 구성원들 다수가 ‘의미화’에 참여하고 공감하게 되는 과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시간, 지지자의 시간, 다른 구성원들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그 시간 차를 메울 수 있는 전략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우선은, 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 이 글의 소박한 제안이다.

(2) 방법과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

1) 영혼이 있는 절차

첫째,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정의(justice)의 경험을 얻는 것⁴⁾이 사건 해결 과정 및 ‘이후’ 작업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한다. 즉,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등대로 삼아야 할 것은 ‘정의’의 회복이라는 지향이다.

둘째, 방관자들이 잠재적 지지자가 되고, 지지자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행동하게 되는 변화를 촉진/격려할 수 있는 방안이 (그 공동체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모색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성폭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무 일도 없을 때 ‘사전에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0여 년의 경험이 보여준 현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회라고 여기는 것은 어떨까.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자기 나름의 의문, 분노, 실망, 입장을 가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 시간은 피해자의 시간과 불일치한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

4) 장다혜 (2012), <성폭력 ‘형사 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하지만, 아무 말도 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이 과정을 침묵시키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피해자/지지자/대책위/책임자들의 주된 고민 주제가 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은 공동체가 진정 의미있는 ‘공동체’이기 위해 저야 하는 책임의 영역이다. ‘피해자 요구안’을 수동적으로 수용/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도 쓸 수 있다. 이 때 가해자에 대응은 단지 특정 가해자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행이 허용범위를 넘어서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환기하고 구성원들 각자가 성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환경의 구성자가 되는 것까지 확장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대응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반성은 (반성한다면) 개인적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반성하게 만드는 조건은 공동체의 몫이듯이, 피해자의 치유는 개인적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은 치유의 ‘조건’이 사회적으로 마련될 때에만 가능하다. 치유의 조건은 사건 해결 과정과 그 ‘이후’의 공동체의 몫이며, 이는 피해자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대우하고, 기억하고, 관계 맺을 것을 요구한다.

2) 피해자의 재 위치화

[공동체 사건이 잘 해결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지인데요. 그게 정말 절실해요. 나 혼자 아니고, 당신이 정말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지지, 응원. 그게 다른 싸움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형성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되어 버려요. 성폭력 사건이 제기되는 순간 양쪽이 짝 갈라져 버리죠. 참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정파든 다 떠나서 기본이 공감대!!! 이것만 있으면 아주 너무나 훌륭할 것 같은데... <사례4, 지지적 해결책임자>

첫째, 사건 해결 과정과 그 ‘이후’는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려는 싸움이기도 하다. ‘몸’으로 취급당하는 경험, 파편화된 부위로 다루어지는 경험, 성적 도구로 착취당하는 경험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몸-인격의 통합성(integrity)을 훼손하고 (일정정도/일시적으로) ‘인간/시민이 아닌 존재’로 취급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사건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 그것은 인간/시민으로서 복권(復權)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여성을 인간/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권력관계를 문제화하면서 공동체의 정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제 까지 ‘잘 해결되지 못한’ 성폭력 사건들에서 공동체가 실패한 부분 중 하나는, 공적 존재로서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다시 사적 개인으로 만들려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피해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제기’이다. 피해를 공론화하는 행위의 공공성에 대한 자부심. 변화를 이끌어낸 출발점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조직 내에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대의적인 걸로만 생각해서 음... 조직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거죠.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이었다면 그런 거 안보였겠죠. 개인으로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그걸 먼저 봤던 거 같아요. 조직 문화. (...) 주변에 이렇게 성폭력 피해 여성분들을 보면 전부 다 이걸 조직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못 봐요, 그거를. <사례5, 피해자>

목적 자체가 공동체 문화의 변화잖아요. 그 분들의 변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용기를 많이 가지셨어요. 모든 여자들이 경험하는 일들이니까. 정도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를 저를 보면서 대리만족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게. 그런 기쁨도 저한테 있었어요. 꼭 그분들이 제 대신 얘기해주는 분들이 아니라, 같이 커 가는 느낌. <사례6, 피해자>

둘째, 이러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사건 해결 과정 및 절차 종료 ‘이후’에 지속적인 공동의 주목/관심/노력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어떤 종류의 부정의인지, 무엇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common sense)’이며, 피해자의 치유와 공동체의 회복은 이러한 공통의 이해 속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동체의 부정의(injustice)를 지적하고 공론화 한 공익적 문제제기자로서 인정하는 것, 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성원권(membership)이 우선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 때 피해자 보호조치가 피해자 ‘격리’ 조치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③ 사건 해결절차 종료 이후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의 이해’를 확인하고 ‘공통의 기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불쌍한 사람, 힘들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분노에 차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 조직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자기 요구만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람 등등)는 여전히 참으로 강력하다. ‘이미지’가 해체되지 않을 때, 개별 피해자들 역시 그 ‘이미지’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불필요한 자기 검열과 방어에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며, 공동체는 변화의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닌 구체적인 이름과 얼굴과 삶을 지닌 개별자로서 피해자를 재인식하는 것, 다른 언어로 피해자를 설명해 내는 것,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관계 맺는 것이다. ‘이미지 해체’ 작업에서 특히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피해자가 (다른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협상 주체이자 변화하는 주체임을 환기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목표도, 공동체의 목표도,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건이 아무리 잘 해결된다 해도, 피해자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 ‘과거’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과거’이므로, 필요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와 적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 해결 과정은 피해자가 그 과정을 통해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지향, 지지해 주는 과정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 스스로도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 싸움의 과정에서 새로운 앎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피해자들은,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과거보다 더 힘 있는 주체가 되어 간다. 어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조직에 대한, 자신에 대한 직면의 힘을 갖게 되고, 문제 상황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지며

(empowering),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전환(transformation)의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것은 가능하다.

[성폭력 사건과 해결과정 경험하면서]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조직 내에서 완전히 강간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하고 잘 안 들여다보게 됐어요. 좀 그렇잖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막상 당사자가 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책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많이 알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음... 조직 내 운동에서도 막 남성중심적인 문화나 이런 게, 잘은 모르겠지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속해있던 단체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왜, 현장에서 구르려면 여성적인 마인드나 그런 색깔보다는 남성적이고 중성적인 이미지로 더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게 저는 그런 게 딱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그때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없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음... 책을 많이 봤던 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지속적으로 모임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사례5, 피해자>

(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즉결 해결,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로 내가 뭘 원하는지 중요하게 아는 거. (...) 일단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자기방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결 처리. (그리고) 말과 행동과 눈빛과 어떤 태도 등에 대해서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몇 년 동안 훈련되다보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너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갖추게 된 거야. (...) 잘 모르겠지만 영혼이 진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사례8, 대책위 활동>

제일 큰 거는 정말 힘이 많이 생겼어요. 마음 속에 쌓여 있던 분노를 정확하게 누구에게 표현해야 할지 알고. (과거에는) 내 분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남발했었다면, 이제는 내가 뭐에 화났는지 찾은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배운 거죠. 과정 중에, 사람들이 나에게서 도망가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찾은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웃음) 저한테

는 인생의 전환기였어요. (...)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기 보다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할까요. <사례6, 피해자>

3) 가해자의 탈권력화/탈중심화

: 상황 판단의 현실주의, 사건 해결의 행동주의

성폭력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기 되돌아보기를 해서 변화가 된다면 활동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가해자 범죄자로 딱 지목돼서 '너는 나오지 마, 지하에 숨어 있어' 그러가지고 우리가 찍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어쨌든 활동을 하고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가해자가 진정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게 정말 어렵죠. 제가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올바르게 산 남성 가해자들을 못 봐서. <사례5, 피해자>

경험적으로 볼 때,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⁵⁾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그 무엇보다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사건해결절차를 거친 사람들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느끼기 쉽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개과천선’은 한계가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할 때 대책위 내부, 혹은 피해자-지지자 간 불신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의해 공론화된 가해자들도 버젓이 책을 쓰고, 국회의원

5)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치유된다는 것은 도덕적 허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치유란 사후적으로 재의미화 되는 것이지, 용서한다고 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방어기제로서 용서라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가해자가 ‘진심으로, 간절히’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먼저 용서의 메시지를 보였을 때뿐이었으며, 사건 발생이후 대부분의 가해자가 진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상대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힘드셨을 부모님이었다.”, 보화 (2012), “성폭력 가해행위 後... 그들이 사는 세상”, 2012년 5월 유색인포럼 <(어떤) 남자와 같이 사는 법, 어떻게 가능한가?>, 2012.5.23. 발제문, 13쪽.

이 되고, 강의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 주소다. 정의를 지향하는 공동체라고 해서 이와 무관한 진공상태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로망이다.) 어떤 의미에서, ‘공생의 조건’을 고민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우리의 정신 (spirit)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이다. 가해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냉소하고 ‘모든 것이 결국 실패’라고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가해자의 ‘중요성’을 낮춰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가해자의 변화를 위해서 내 삶을 전혀 희생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가해자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유로워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직면을 하려고 했어요. 도망 다니고 뒤에 숨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해서 남자들과의 안 좋은 패턴들이나 억압이 쉽게 되는 저의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뿌리 뽑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 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힘이 생겼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사례6, 피해자>

상황 인식이 더 ‘현실적’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피해자와 지지자들에게 더 이롭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대응할 수 있는 협상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삶과 행복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여부에 달려 있지 않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곡해된 ‘피해자 중심주의’와 암기된 ‘피해자 요구안’, ‘징계가 썰수록 좋은 해결’이라는 안이한 판단들이 뒤섞이는 가운데)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용서’에의 압박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서는 면책과 동의어가 아니며,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차원에 놓인 단어들이다. 그러므로 거래될 수 없다. ‘용서’는 피해자가 다시/계속 살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며 그 시점 또한 타인이 강요/강제할 수 없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듯) 용서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책임’은 가해자가 ‘인간’이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가령 징계의 수행은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법’이지 책임 그 자체가 아니다. 징계 수위는 협상될 수 있지

만, ‘책임’은 가해자 스스로 ‘인간’이기를 선택해야 느낄 수 있는 것이다.⁶⁾

4) 사건해결과정에 매듭 만들기

: ‘끝’은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이나 공동체의 여성주의적 혁신은, 실은 요원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공동체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만하랴’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해자가 ‘진심어린 반성’을 할 때까지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반성시킬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은 언제, 어떤 지점에서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가해자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그러느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직 안에서도 거의 잊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겠거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죠. 그렇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변화 없이 계속 가니까. 이게 조직 내에서도 이런 사건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많을 거 아녜요. 그런데 그런 게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리고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는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 (사건의) 정리 시점이

6) “우리 안에 자라나는 성찰, 나와 타인을 돌보는 힘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답게 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힘입니다. 성폭력 가해자에게 가장 큰 형벌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을 성찰하는 눈을 주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한 일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그 부끄러움과 괴로움은 사법 기관이 내리는 징역형보다 훨씬 아플 거라고요. 반성 없는 가해자가 무섭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보통의 경험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이매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직에서 이 사람에게 썩게 문제제기 하지 않는 이상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가해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해자가 약속 이행을 제대로 안 했던 부분에 대해) 조직도 방관을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가해자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면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직에서 누가 제어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지금은 오히려 ‘나는 할 것 다 했는데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된 거냐?’ 오히려 그런 입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음... 이 사건의 종결은 조직이 나서야 된다는 결론 밖에 안 서요. <사례5, 피해자>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 사건의 마무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공식적으로 조직 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마무리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례4, 지지적 해결책임자>

어디를 종결로 볼 것인가. 음... 저 개인적으로는... 공문을 보내는 것 까지가 종결로 여겼어요. 가해자 반응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고요. [개인의 종결과 공동체의 종결이 의미가 다르다면, 공동체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그냥 개개인들이 그걸 통해서 생각이 변하는 것이 종결 아닐까요? 그 각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공동체에게는 공동체가 변화하는 게 의미인 것 같아요. (...) 가해자는 저의 뜻대로 절대 안 해주잖아요. 저의 뜻대로 한다고 해도 가해자의 생각이 변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 피해자 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 (하지만) 저는 이 일의 해결 지점을, ‘내가 힘을 갖고 있다, 그것에 의미를 두거든요. <사례6, 피해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신의 몸/관계/삶에 대한 일시적인 통제력 상실의 경험이라면, 피해의 치유는 그러한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분위기, 구성원들 몇 명의 권력, 가해자의 징계 수용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게 하려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의 종료 여부와 시점에 대해 피해자가 최소한의 통제력은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요구한 목표의 최소/최대 한계치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일 수도 있고, ‘무엇 무엇이 수용되면 종결’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삶의 조건에 비추어 ‘언제까지’라는 시점을 정하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스텝(step)이 마련될 때 이전 스텝(step)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무엇이(언제가) 사건 해결의 종료인가?’라는 괴로운 질문은, 이런 관점에서도 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성폭력 사건의 ‘이후’에 주목하고, 공동체-다시 만들기의 ‘과정’에 개입하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5) 성폭력 말고도 문제는 많다

: 성별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의 다각화

가해자들이 교육 받을 때는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을 받고 딱 벗어나면 여기(공동체)는 원래 그랬던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흡수, 동화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실천을 한다거나 변화되는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게 좀 자기(가해자)한테도 계속 남아 있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례5, 피해자>

꼭 성희롱 아니라도 문제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는 성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뭐 끝이라는, 각자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그렇게 협상의 여지 없이 그냥 끝나서... <사례10, 피해자/대리인>

공감대가 되어야 되는데. 규칙이나 규정에 ‘여기까지는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통용되는... (그냥) 폭언이나 성폭력이나가 논쟁되는 분위기 말고. 피해자가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아... 나는 별로 아닌데 저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걸 인정해 주는 정도만 되어도 굳이 피해자들이 그걸 ‘어디까지는 뭐고 어디까지는 뭐예요? 선을 그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어려운 것을 아니까. 근데 이제 이게 논쟁이 되는 분위기다 보니, 법으로라도 (성폭력인지 아닌지) 가려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힘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례2, 대리인/대책위>

강간이라는 ‘확실한’ 성폭력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들은, 공동체 내 해결 과정에서 예외없이 “이것도 성폭력인가?”라는 논쟁(?)에 휩싸이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은 “이것도 성폭력이다” 라고 확인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성폭력이 남성이 여성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최대/최악의 악행인가? 성폭력‘만’ 나쁜가? 성별권력관계를 유지/재생산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위들을 ‘성폭력’이라는 한 가지 단어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좋은가?

나는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때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에게 이 나쁜 질문을 더 이상 유통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권력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수많은 폭력적, 억압적, 권위적, 차별적, 혐오적, 비하적 언행들이 모두 ‘성폭력’으로 ‘사건’화 되는 배경에는, ‘성폭력’만 아니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드넓은 관용과 ‘사건’화 되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일상적 권력이 놓여 있다. 이것이 많은 가해자들이 ‘성폭력만은’ 아니라고 혼신을 다해 부정하는 이유다. 성폭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폭언, 폭행, 권위주의, 사기, 무례 등등), 그 다른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폭력 외의 다른 것’을 ‘별 것 아니’라고 관용해 온 공동체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관용해 온 조직문화와 일상적 권력을 문제화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론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성폭력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지루하고 심난한 교착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문제제기가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낳고, 페미니스트/지지자들 역시 고민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무조건 지지’해야 하는 분열적 상황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만’ 문제로 간주되는 상황, 혹은 성폭력이 ‘가장’ 문제라고 간주되는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 하나의 방법은, 우선 그것이 ‘문제적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더 적절한 이름과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다.

왜 ‘어떤’ 행동/말/태도는 여성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는가? (성폭력이) ‘왜 힘든가’는 언제나 맥락 의존적이다. 똑같은 행위도 상황에 따라 문제적(성폭력)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똑같은 유형의 행위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 모든 피해가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을 ‘매뉴얼화’ 하거나 ‘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좋은 절차와 규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성폭력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슷한 정도의 감수성을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가 성폭력 피해의 내용을 ‘수치심’으로, 피해자를 ‘보호’ 대상으로, 문제제기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해하는 한, (아무리 절차적 사건 처리가 완료되었다 해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되기 쉽다. 또한 여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성폭력’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설명하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거나, 혹은 피해자를 변화하고 해석하는 주체가 될 수 없게 만들 위험이 크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공통 감각(common sense)이다. 이것이 존재할 때, 그래서 고통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높아질 때, 치유는 시작된다. 이것이 공동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즉, 고통의 맥락성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워크숍, 교육, 소시오드라마 등). 또한, 모든 의사소통이 동의/거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 그 둘은 선명하게 파악/인식/주장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실제로 (성적이든 그렇지 않든) 의사소통은 연속적인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하도록/협상하도록 '여자'와 '남자'가 훈련되어 왔는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만들고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성폭력 예방 노력'이 될 수 있다. 이 때 '새로운 소통방식'이란 A라는 피해자와 B라는 가해자가 단둘이 알아서 합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의사소통 방식과 문화가 달라져야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성별불평등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3개년, 5개년, 10개년 계획의 로드맵이 구상되고 적절한 인원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저희 여성 관련한 교육이 지금도 여전히 성희롱사가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저는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와주질 않잖아요.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라는 한 면접자의 말처럼, 사회운동조직의 성 평등 교육 커리큘럼은 매년 ‘서론’만 반복하거나 ‘기초’ 교육조차 전원이수를 관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감수성을 높이고 사건 해결 과정이 사건을 거듭할수록 진보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소규모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사례들을 다루는,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운영될 필요가 있다.

6)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

기억이란 하나의 행동이다. 본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행동이다.

- 피에르 자네Pierre Janet -

권력에 맞서는 투쟁은 곧 망각에 맞서서 기억이 벌이는 투쟁이다.

- 밀란 쿤데라 -

갱신을 거부하는 ‘우리’는 파시즘이다. 진보하지 않는 진보는 ‘진보’라 부를 수 없다. 특정한 가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단결하는 ‘우리’의 구성은 정치의 기본인 동시에 ‘우리’ 내부의 차이와 이질성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 단결과 헌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결하고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을 통해 내가 속한 이 조직이 기대했던 그 공동체가 아님이 드러났을 때, ‘우리’라는 커뮤니티를 성립/복원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공유된 기억’이다. 절차 종료 이후 암묵적으로 ‘함구’하게 되고 아무도 사건에 대해 말을 꺼낼 수 없다면,

사건 해결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반대로, 공동체가 그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함께 기억하는 것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건 해결절차 종료 후에 공적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의미 공유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동체 역사의 일부이며, 공동체 성장의 증거이자 나이테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역사에 ‘그 사건’이 다시 통합되어야, 그래서 ‘아무도 꺼내지 않는 얘기’가 아니라 던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과거가 되어야 ‘공생’이 가능할 수 있다.

성폭력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그 반대를 통해 다른 사회, 다른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다름에 대한 상상력은 사회적 정의(justice)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태어날 수 있다. 다시 한 번 써 본다. 지금 우리에게겐 ‘부정의 (injustice)’를 감각/인지할 수 있는 평균적 감수성 자체를 높이는 것, 그 ‘부정의’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동시에 다시 ‘정의’를 추구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생의 조건. 함께 살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인 것이다. ☒

<표 2>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조직 특성	사건 당시 위치	사건 추이 및 사후 작업
1	여성	소규모 사회단체	지지자 (대책위격)	내규 없이 공동체 합의 ⇒ 가해자 연락 두절로 흐지부지됨
2	여성	노동조합	대리인	사건1: 내규에 의해 절차 완료 사건2: 내규에 의해 절차 완료
3	남성	정당	대책위 / 지지자	내규에 의해 절차 완료
4	여성	노동조합	지지적 해결자	내규에 의해 절차 거침 ⇒ 미종결
5	여성	노동조합	피해자	사건1: 내규에 의해 절차완료 사건2: 내규에 의해 절차완료
6	여성	종교단체	피해자	내규 없이 사건화 ⇒ 사건 종결 ⇒ 내규제정
7	여성	대학 상담소	상담자	학칙에 의해 절차 진행
8	여성	소규모 사회단체	대책위	내규 없이 비대위 구성하여 사건화 ⇒ 토론회
9	남성	소규모 사회단체	지지적 해결자	내규 없이 사건화 ⇒ 가해자 징계 (내규 제정 안됨)
10	여성	학생조직	피해자 / 대책위	내규 없이 비대위 구성해 사건화⇒ 절차 완료 ⇒ 내규제정

발제 II

공동체 성폭력 '이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

- '공생의 조건' 교육 프로그램 사례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발제 II

공동체 성폭력 '이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

- '공생의 조건' 교육 프로그램 사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⁷⁾

1. '공생의 조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배경

○ 공동체 해결은 성폭력을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나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며 성문화나 의식에 대한 성찰과 성별권력관계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공동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과정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7) 여기서 소개되는 프로그램은 유경희, 이선미, 이임혜경, 전희경, 정하경주가 함께 논의하여 정리하였으며, 이 글은 이선미, 이임혜경이 작성하였다.

○ 가해행위를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 또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적당한지 과한지를 두고 긴 시간의 공방 그리고 일상적인 갈등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으로 옮겨와 공방/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원칙이나 규칙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정돈되어 있지 않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외면하거나 침묵하게 된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징계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철저히 구성원들과 가해자를 분리하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모두 공동체 문화나 성의식 변화로 연결되기 어렵다. 본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어 공동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 또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심해져 회복이 어렵거나 사건 이후 피해자/가해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뭔가 더 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 이후, 그 동안의 과정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공생의 조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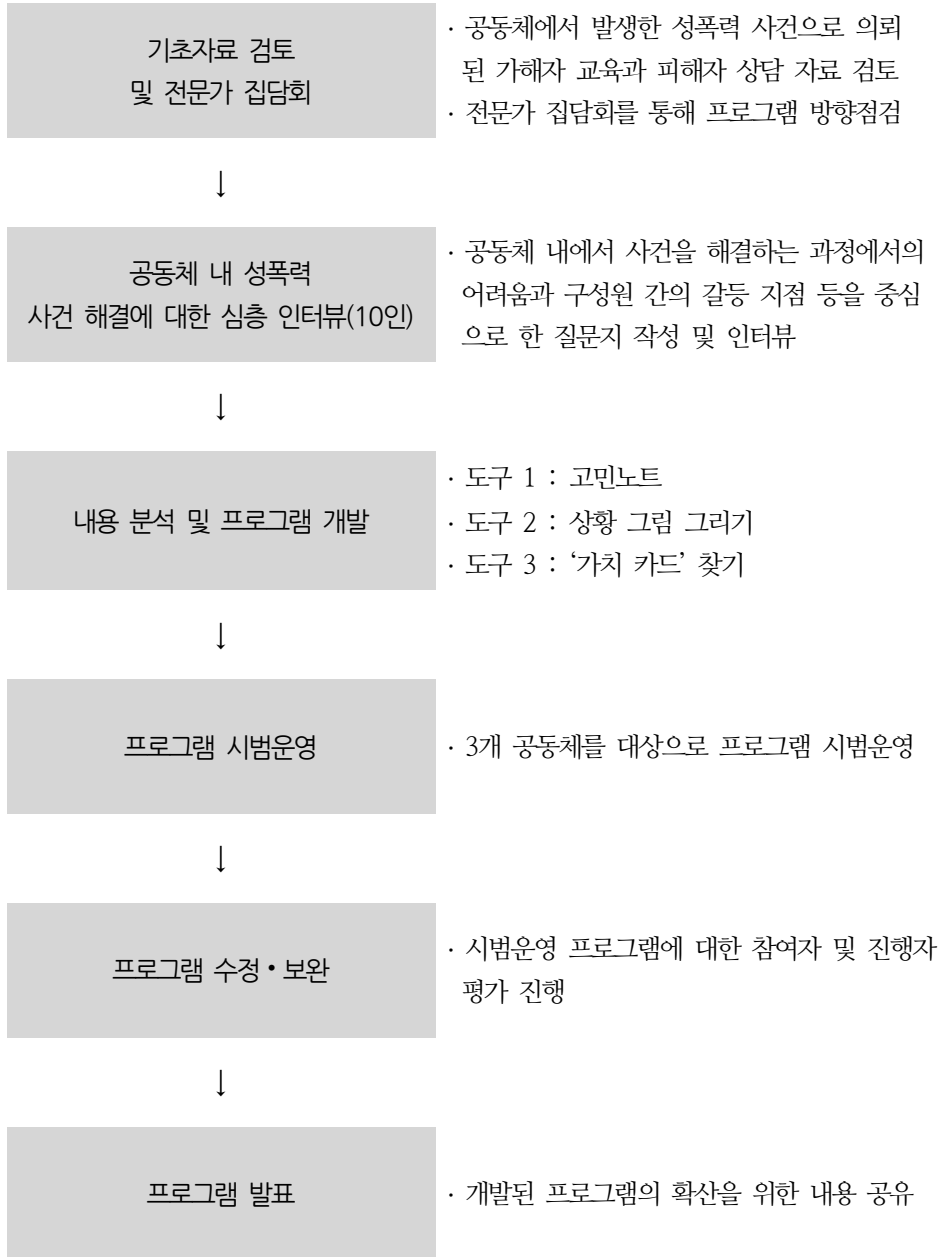
2.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개발과정

○ 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먼저 공동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둘러싼 역동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상담소에서 지원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그 동안 본 상담소에 의뢰된 가해자교육 중 대책위 논의 과정, 가해자 징계 절차, 구성원 논쟁을 검토하며 교육 프로그램 설계했다. 그 뒤 전문가 집담회와 공동체 사건 해결의 경험을 가진 10인 인터뷰를 통해 사건 해결에 대한 다양한 고민

의 지점을 논의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강의안 내용을 심화하여 정리했다.

○ 개발과정 흐름도



2) 프로그램 목표

(1) 잠재적인 지지자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성폭력 사건이 발생 한 이후 공동체의 역동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지지그룹이나 피해자 지지그룹에 속하지 않은 구성원들은 지켜보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 나름의 의문, 분노, 실망 등의 감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입장을 드러내며 논의에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숨겨져 있는 피해자 지지자를 드러낸다.

(2)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의 절차만 있는 경우 절차를 진행하는 소수의 구성원들만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고 개입하게 되며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결과만 전달받게 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해결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 있다. 절차적으로 사건이 종결됐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해결에 대한 평가는 상반 될 수 있다.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폭력의 의미, 피해자의 고통 등을 함께 공유하고 사건 해결 절차에 대한 이해와 합의 과정을 통해 사건 해결의 의미를 찾는다.

(3) 조직 문화 변화에 기여한다.

: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성차별적 조직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조직의 운영방식,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이 미친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젠더 관점으로 조직 문화를 환기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반(反)성폭력 감수성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 공동체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룬 경험을 가진다고 해서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성폭력 사건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반(反)성폭력 감수성이 높아지기 보다는 성폭력 두려움이나 분노만이 팽배한 것과 같이 공동체에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넓어지고 잘못된 편견 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반(反)성폭력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3. 프로그램의 실제

1)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1) 공동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표준 강의 안을 집단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배치한다.

(2) 강사가 주도하는 강의 방식 보다는 참가들이 자신의 경험,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감정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3) 프로그램의 특성상 참여자들의 토론을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충분한 의견 교류가 어렵다. 프로그램 참가인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팀을 나누어 진행한다.

2) 프로그램 적용의 실제

(1) 참가집단 기본자료⁸⁾

사례	참여 인원(명)		사건 해결 절차	특징
A	8	여 : 5 남 : 3	성폭력 사건 발생 후 내규 제정	2011년 사건 발생 후 가해자 징계 종결 된 공동체
B	11	여 : 3 남 : 8	일반 내규로 성폭력 사건 처리	2012년 사건 발생 후 가해자 징계 종결 된 공동체
C	5	여 : 5	성폭력 사건 내규로 사건 처리	성폭력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각 공동체의 담당자

8) 교육 집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였으며, 교육 중 대화, 반응, 평가 내용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자료로 사용하였다.

(2) 프로그램 강의안⁹⁾

1학기.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기억하는 공동체

1. 왜 ‘공생의 조건’을 고민하는가

2. 구성원들의 고민 드러내기 도구1 : 고민 노트

1) 구성원들의 고민 말하기

2) 성폭력 사건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욕구

- 피해자가 조직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 피해자의 위치
- 주변 사람들, 동료, 대리인 등
- 갈등의 이유, 꼬이는 문제들

3. 성폭력의 개념

1) 성폭력에 대한 이원화 된 태도

- 흉악한 범죄로서의 성폭력 : 성범죄를 괴물로 다루는 언론
- 특정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지만 반(反)성폭력 감수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

2) 피해자 관점

- '왜 문제제기 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서사에 주목하기

3) 법적 성폭력 개념의 한계

- 형법 상 성폭력 개념 (법적 성폭력 유형, 최협의설 등 법의 한계)
- 성차별적 문화, 관계의 성찰이 아닌 법적 용어로만 성폭력 인식의 문제점

9) 본 프로그램 강의안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공생의 조건’ 프로젝트 결과물의 하나로, 강의안에 정리된 공동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한 고민들은 프로젝트의 또 다른 결과물인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전희경의 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본 내용에서는 강의 흐름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주제별 구체적인 내용은 전희경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1. 공동체 내 성폭력의 유형

1)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징

- 언어, 물리적(회식자리 스킨십 등)성폭력: 조직 내 문화와 연결 된 사건들
- 대부분 일상적인 관계에서 발생: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 바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 관계의 파괴에서 오는 불안감, 부담감

2) 성폭력 사건 해결 절차만 진행하게 되는 현실

3) 조직 구성원/ 당사자로서 생기는 갈등

- '아는 사람'에 대한 관계 갈등, 일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

4) 성폭력 가해자는 '왜 그랬을까'

- 가해자의 변명
- 여성의 몸에 대한 시선,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문제
- 가해자의 사건 흐름도 :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선택과 결정의 과정

2.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공동체 내 상황 그림 그리기 도구2 : 상황 그림

1) 구성원 간 관계성 드러내기

2) 공동체 상황과 관계 파악

- 다양한 시선에서 각각의 위치, 관계, 갈등 요소 찾기

3회기. 성폭력 사건 해결 이후 남아 있는 문제들

1. 드러난 문제의 의미 짚어보기

- 1) '피해자 중심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 '피해자 관점'에 대한 명명의 역사와 의미
 - 현재의 한계점 : 조직의 수동성 조장 / 과도한 기대

- 2) '2차 가해'를 다시 생각하다
 - 2차 가해라는 명명은 왜 필요했고, 무엇을 '가해'하기 때문에 문제 삼아야 하는가(왜곡된 해석들이 주는 또 다른 고통)
 - 공격을 하기 위한 단어가 아닌 공동체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

- 3) 비밀주의 원칙 vs 정보 불균형의 문제
 - 사건 해결 절차에서의 비공개 원칙
 - 적극적으로 남성동맹을 구축하는 가해자, 가해자 버전의 사건 개요
 -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지지세력' 만들기의 어려움

2. 공동체 내 성폭력사건 해결의 원칙을 다시 생각하다

- 1) 영혼이 있는 절차

- 2) 피해자의 재위치화

- 3) 의미화 vs 의미훼손

- 4)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

4회기. 무엇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

1.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가치' 찾기 도구3 : 가치 카드

- 1)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 뽑기
- 2) 교육 참가자 각자의 가치 확인하기
- 3) 교육 참가자들의 합의하에 공동의 가치 정하기

2. 서로의 고민 해결하기 도구1 : 고민 노트

- 1회기 때 작성했던 고민노트를 참여자들이 돌려가며 서로 답변을 쓰며 구성원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고 나누기

3. 강의 평가

- 평가지 작성 및 소감 나누기

(3) 도구의 활용 사례

📎 도구1 : 고민 노트

<p>목표</p>	<p>구성원들의 고민을 공유하며 공동의 답을 찾아본다.</p>
<p>준비물</p>	<p>질문지</p>
<p>진행</p>	<p>1. 고민 노트(질문지)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받으면서 해결하고 싶은 나의 고민 - 사건을 목격했던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의 고민이나 드러내지 못했던 마음의 갈등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고민노트 작성 사례</p> <p>참여자 1)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조직 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서로의 진의를 의심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갈등을 키우게 되고 가해자가 퇴출된 뒤에도 조직에 상처가 남는 것 같다</p> <p>참여자 2) 피해자가 알려지기 원하지 않을 경우와 조직 내에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의 딜레마. 처음 성폭력 사건을 접한 후 피해자에 대한 대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가해자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 경우</p> <p>안쪽은</p> <p>그 사람이 처한 상황 (가족·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p> <p>처벌의 강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p> <p>만약 나라면. 그동안 살아왔던 관계를 모두 내세워주어</p> <p>끝까지 강경하게 처벌을 요구할수 있을가</p> </div>

2. 작성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걷어 강사가 질문지 내용을 읽어준다.
3. 참여자들의 고민 내용 서로 공유한다.
4. 각자 작성한 고민노트를 돌려서 서로 답변을 단다.
: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4회기에 진행한다.

☆ 고민노트 답변 작성 사례

고민) 피해자에게 아는 체를 하며 위로를 해줘도 되는지 고민돼요. 피해자는 널리 알려지는 게 싫을 수도 있고, 잊고 지내고 싶은데 자주 상기시키게 될까봐 모르는 체 해야 하는지 아는 체를 해도 되는지 고민돼요. 가해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지도 고민돼요. 가벼운 스킨십이나 유부남녀의 조금 야한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도 고민이에요.

답변) 피해자에게 위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피해자 차원에서 용기를 내서 공론화 한 것이고, 조직에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체 하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인간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의 여부는 본인이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잘못된 점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스킨십'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까지를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스킨십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한 말을 하는 당사자들끼리 괜찮다면 대화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자제해야겠지요.

가해자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 경우 그 사람이 처한 안 좋은 상황(가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처벌의 강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그 동안 쌓아왔던 관계를 모두 배제한 채 끝까지 강경하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 것, 고민은 계속하게 될 것.
내가 강사에게 걱정 얘기하라면 역시 어쩔 것. 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원칙이 먼저라면 ~~관용~~ 관용을 놓고 결국 ~~강경~~ 강경한 조치인 사처를 무너뜨리게 될 것.

참여자 소감

☆ 고민노트 참여자 소감

• 가해자를 적당히 감싸거나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이의제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입장이 다른 거 같아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죠. 생각이 다 다른 것들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과정들이 없었고 다들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말은 하죠. 원칙대로 안 되는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절차적인 문제들, 미묘한 갈등들, 세세한 단계별 의견 충돌들을 드러내 놓고 얘기하는 자리나 비판하고 조율하고 수정하는 자리가 그동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구2 : 상황 그림

<p>목표</p>	<p>성폭력사건으로 야기된 공동체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감추어진 상황을 드러낸다.</p>
<p>준비물</p>	<p>사람 얼굴 모양 카드, 부착판</p>
<p>진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고 얼굴 모양 카드에 써서 칠판에 붙인다. 2. 흐르는 관계성에 따라 배치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맺고 있는 관계성을 내면의 느낌에 따라 배치 - 누구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 옆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배치 - 또 다른 구성원 또는 구성요소들 배치 <div data-bbox="436 1006 1155 1696"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p>☆ 상황 그림 그리기 사례</p> <p>< 참여 집단 A ></p> <p>· 피해자 알고 발의 하면 · 수감 되고 싶다 (어른 · 피해자 처벌 받고 · 연인)</p> </div>

3. 공동체 상황, 관계를 파악한다.

- 다양한 시선에서 각각의 위치, 관계, 갈등 요소 찾기

☆ 공동체 상황, 관계 파악 사례¹⁰⁾

강사 : 등장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참여자1 : 대리인

강사 : 대리인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누구를 쳐다보고 있죠?

참여자2 : 피해자 가까이에는 있지만 피해자만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전체 사건을 보려고 애쓰겠죠. 하지만 대리인은 이 상황에서 '나'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자기검열, 내가 피해자의 얘기를 잘 전달했을까? 분노를 그대로 표현했을까? 피해자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으면, 예를 들면 2차 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확 문제제기 했을 것 같은데 나라서 그냥 조직 구도 상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용인하는 게 아닐까 라는 검열을 끊임없이 해요. 나는 어차피 제 3자 밖에 못 될 텐데 라는 감정 때문에 전체 구도를 보기 보다는 그 사건 안에서 종종걸음 치기 급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 :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처리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또 어떤 등장인물이 있죠?

참여자1 : 구성원

참여자 소감

☆ 상황 그림 참여자 소감

•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를 하나씩 나타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심리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가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

고. 그렇지만 이런 시도로서 뭔가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 했어야 됐고 혹은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발언을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는 거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건을 이야기하며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할까봐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편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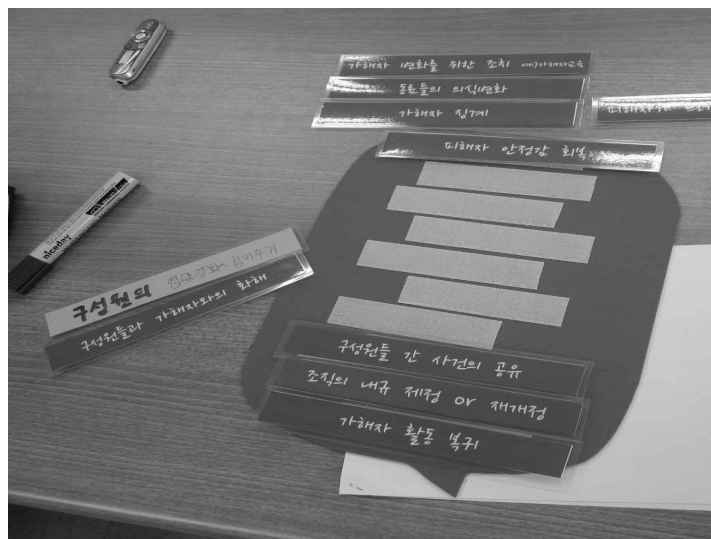
- 정파갈등도 짚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상황 그림에서 구성원 1이 피해자 옆에 있지만, 피해자 지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파 지지 일수도 있거든요. 가해자도 마찬가지로요.

10) 상황 그림 그리기 진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9쪽 별첨자료로 녹취록 요약본을 첨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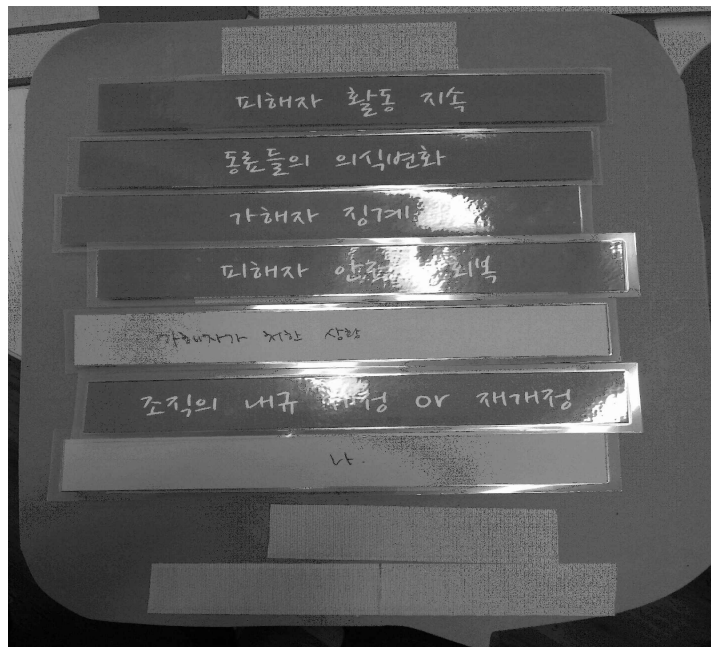
📎 도구3 : 가치 카드

목표	사건 해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 기준으로 삼을 가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상을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만들어 본다.
준비물	가치 카드 (참여자 1인 당 10장 1세트 준비)
진행	<p>1.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각자 뽑아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뽑아도 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빈 카드에 적는다. - 가치카드 내용 : 피해자의 안정감 회복, 가해자 변화를 위한 조치(예: 가해자교육), 조직의 내규 제정 또는 개정, 피해자의 활동 지속, 구성원들간 사건의 공유, 구성원들과 가해자와의 화해, 가해자 징계, 동료들의 인식변화, 가해자의 활동 복귀,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한 조치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가치 카드 찾기 사례</p> <p>강사 : 나눠 드린 카드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1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각자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뽑아 판에 붙이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10개의 카드를 다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빈 카드에 새롭게 쓰셔서 붙이시면 됩니다.</p> </div> <p>2.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이 뽑은 가치 카드에 대해 설명 한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가치 카드 발표 사례</p> <p>참여자 1) 이 안에서 순위를 정해보자면 피해자 안정감 회복이 최고의 순위구요, 가해자 활동 복귀는 제일 마지막 순위, 저한테</p> </div>

구성원들 간 사건의 공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순위예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중요한데 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옆에 빼둔 것이 구요. 다만 피해자의 활동 지속은 만약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그녀가 힘을 갖게 됐다면 그것은 그녀가 판단할 문제이지 공동체에서 고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공동체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 고민 내용에 (피해자가) 그다지 동의도 안 될 것 같아요. 구성원들과 가해자의 화해라고 해서 저는 이 표현이 참...예전 어떤 사건에서 구성원들(대부분 여성)이 가해자의 복귀 시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 가해자를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 할 지, 피해자와의 관계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동의하는 것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해라고 하기보다 제가 가해자를 넘어서야 하는, 가해자가 우습게 보여야지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힘 키우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명명이 되면 제 경험에서는 적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새로 카드에 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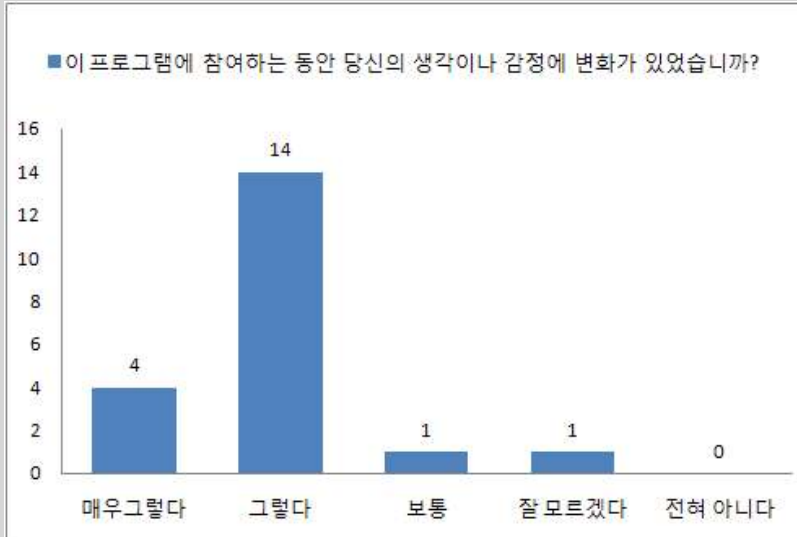
참여자2)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가 안정감 회복이나 활동지속 문제가 있었고. 역으로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렇게 처분이 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도 했었구요. 그래서 가해자 징계에 대한 생각을 했고. 저도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나 동료들의 의식변화가 많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구성원들의 사건의 공유는 고민을 했었는데 피해자가 이것을 최대한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구성원들도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 상황에서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되나 안 알려야 되나를 고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p>3. 공동의 가치 가드를 뽑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작업과 똑같은 방식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정한 가치 카드만 뽑아 판에 붙인다 <p>4. 가치 카드를 뽑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나눈 얘기들, 즉, 왜 이 카드를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로 뽑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한다.</p>
<p>참여자 소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0f0f0;"> <p>☆ 가치 카드 참여자 소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짜 고민이 많이 되네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막 있었어요. • 구성원과 가해자와의 화해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조치, 안정감 회복, 역량강화, 구성원들의 의식변화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div>

3) 교육 참여자들의 평가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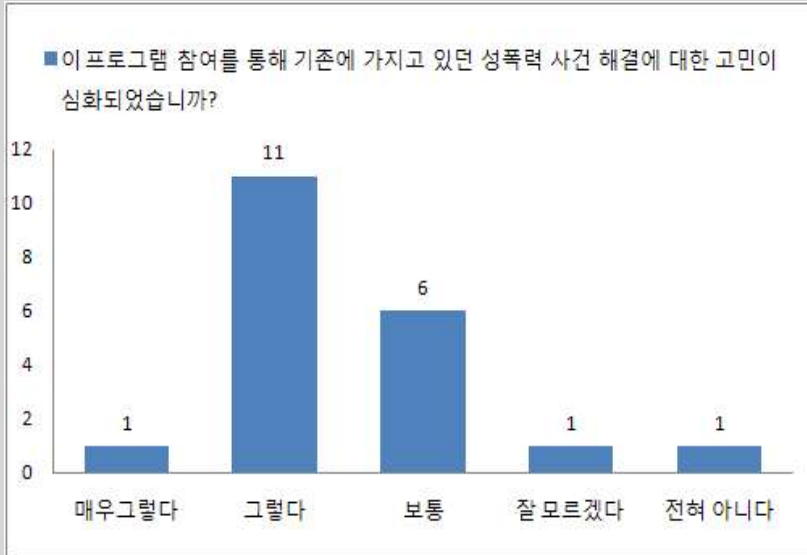
(1)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공동체의 의미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고민의 계기가 되었다. 즉,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을 기본 목표로 갖고 진행하는 것.
- 인식 못했던 피해자의 심리. '피해자 중심주의'의 오독 해소
- 솔직한 대화가 오갔던 것 같다. 자기비판도 이루어졌다.
- 나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평가하거나 평가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의 치유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접근, 해결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감정에 그저 공감만 되어서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했지만 교육 이후 그 근거를 찾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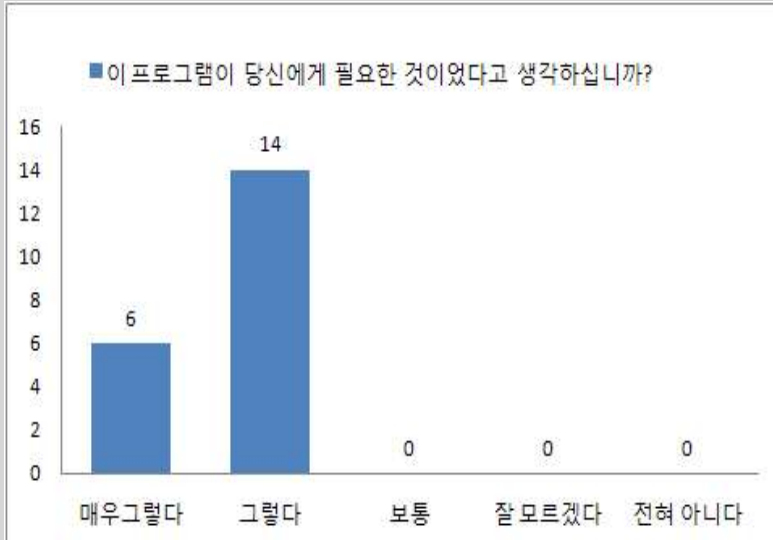
11) 교육을 마친 후 간단한 평가 문항으로 참여자들의 소감과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2) 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었습니까?



- 심화되었다기보다 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
-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조직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다.
- 피해자에 대한 인식,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내며 소통해야 하는지 다시 조명하게 됐다.
- 단순히 가해자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태도,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도 알게 됐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해자 구도 또는 피해자의 요구 수용 문제보다 ‘사건의 의미화’라는 말이 길게 다가왔습니다.

(3) 이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었고 정말 공생할 수 있는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기존 문화, 관계(?)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었다.
- 피해자를 많이 이해하게 되고 다른 구성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조직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느낌.
- 공동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며 평소 생각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고민도 해 보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 과거 공동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회의와 실망을 많이 느꼈다.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4) 이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성폭력 사건의 해결방법 매뉴얼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건 해결의 선례를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해도 쉽고요. 다른 곳의 얘기들이 더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 ‘역할 찾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함.

(5)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살 떨렸음. 나의 인식과 행동이 규정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 때문.
- 교육 후 조직 진단 평가서 같은 것이 나와서 구성원들이 객관적으로 우리 조직의 현재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은 문제이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 정도로.

4.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공동체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확장하고자 하였고, ‘공생의 조건’ 교육은 이러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었다. 해결 절차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 사건의 비밀주의로 인한 정보 불균형, 2차 가해 등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으로 프로그램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그 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은 법 중심의 교육이 대부분이었으며 감수성 교육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효과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공생의 조건’ 교육은 당면한 과제를 함께 정리하며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기에 참여자들의 반(反)성폭력 감수성 향상과 공동체에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공동체 성폭력 ‘이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생의 조건을 마련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에서 공동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 ‘공생의 조건’ 교육은 성폭력 사건 경험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조직문화의 성찰, 감수성 향상, 피해자 재 위치화 등의 문제의식은 사건 이전에 진행되는 예방교육으로도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공동체가 이런 교육에 관심이나 의지를 보이기가 어려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 집단의 특성에 따라 고민이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됨으로써 평균적인 강의안의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공동체 성폭력 사건 해결의 문제의식을 널리 알리는 활동과 함께 교육 사례를 쌓아가며 이러한 한계점은 보완해야 한다. ☒

〈별첨 자료〉 ④ 도구2 상황 그림 그리기 녹취록 요약본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된 세 곳의 공동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참여자의 대답이나 나온 내용들을 섞어 정리하였고, 지면 관계상 전체 내용을 다 신지 못하고 축약하였음을 밝힌다.

강사 : 공동체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구성원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곳을 향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 상황을 이 사람 얼굴 카드로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체 성폭력 사건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참여자1 : 피해자

강사 : 피해자가 있어요. 칠판이 조직이에요. 피해자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성폭력 사건 구성에 있어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참여자2 : 중심

참여자3 : 있다가 중앙에서 밀려나야 하는데...

강사 :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면 움직여 볼게요. 그 다음 등장인물은 누가 있나요?

참여자4 : 가해자

강사 : 지금부터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해요. 가해자가 등장했어요. 가해자는 피해자 옆에 있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그리고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참여자5 : 가해자는 별로 피해자를 좋아하거나 피해자를 보지도 않아요.

강사 : 그럼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겠네요.

참여자1 : 그냥 딴 데, 아니지, 고개를 숙여야지. 고개를 숙여요.

참여자2 : 시선을 비껴서 옆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딴 데를...

참여자3 : 공동체 구성원들을 볼 것 같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신이 이 공동

체 안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고 계속 인정받고 존속하고 싶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강사 : 그럼 가해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으세요?

참여자1 : 초창기는 아무생각도 없고 바보처럼 행동 할 거 같아요. 자기반성하고 후회해 봐야 때는 늦었고 그냥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을까요?

강사 : 그걸 뭐라고 표기하면 좋을까요?

참여자1 : 자포자기

참여자2 : 망연자실

참여자3 : 자기 합리화 및 방어. 정당화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사 : 그럴 때 주로 생각하는 건 뭔가요? 합리화 및 방어를 할 때요.

참여자4 :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쁜 의도를 가진 행동은 아니었다. 일상적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문제가 될지 몰랐다.

참여자5 : 기억이 안 난다.

참여자6 :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거.

참여자7 :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여자1 : 자기는 호의를 표시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그게 아니었다니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참여자2 : 니가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것.

강사 :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한 배신감이죠?

참여자2 :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피해자는 그런 감정의 순간을 상당히 오랜 시간 몰입한 반면 가해자는 몰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 것에 훨씬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참여자4 :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참여자5 : 그리고 가해자는 임원, 경영진, 간부, 인사위원(어떤 직위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해요.

강사 : 그렇다면 임원, 경영진 등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참여자1 : 시선은 자기 이미지를 향하고 있어요.

참여자2 : 아... 좀 씁쓸한데요?

강사 : 자기 이미지를 향하고 있다고요?

참여자1 : 자기 이미지 관리

참여자2 : 나한테 어떤 타격이 있을까? 나한테 해는 없을까? 라는 생각

참여자3 :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참여자4 : 잘못하면 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그 긴장감.

참여자5 :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 조직의 안정과 조직이 와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갈등들이 조직을 둘로 쪼갤 수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전체적인 화합을 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강사 : 조직의 와해, 조직의 균열 같은 것인가요?

참여자5 : 그게 더 걱정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건의 본질에 다가서기 보다는.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참여자6 : 임원이 구성원을 보기 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외부시선에 신경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7 : 저희 공동체는 실제로 가해자들이 높은 권력을 가진 임원이나 간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임원하고 가해자가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고 가해자를 바라보기도 하죠.

강사 : 아...그럼 좀 더 위치를 가까이 둘까요? (위치 이동). 그럼 또 등장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참여자1 : 대리인

강사 : 대리인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누구를 쳐다보고 있죠?

참여자2 : 피해자 가까이에는 있지만 피해자만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전체 사건을 보려고 애쓰겠죠. 하지만 대리인은 이 상황에서 '나'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자기검열, 내가 피해자의 얘기를 잘 전달했을까? 분노를 그대로 표현했을까? 피해자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으면, 예를 들면 2차 가해 하는 사람들에 대해 확 문제제기 했을 것 같은데 나라서 그냥 조직 구도상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용인하는 게 아닐까 라는 검열을 끊임없이 해요. 나는 어차피 제 3자 밖에 못 될 텐데 라는 감정 때문에 전체 구도를 보기 보다는 그

사건 안에서 종종걸음 치기 급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 :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처리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또 어떤 등장인물이 있죠?

참여자1 : 구성원

강사 : 구성원을 좀 더 구체화 시켜 보겠습니다. 특성들이 다 있으니까요.

참여자2 : 피해자만 쳐다봐주는 구성원이 있고, 한 세 부류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가해자 편을 드는 구성원이 있고 중립적인 입장을 갖는, 사실은 조직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쪽저쪽 입장을 내지 않는 구성원이 있고요.

참여자3 : 그런 구성원도 있어요. 침묵하는 사람. 나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것이죠.

참여자4 : 침묵할 때 그런 표현도 하죠. 나는 중립이다.

참여자3 : 어디에도 안 속해있다고 말은 하지만 본질을 보면, 자신이 왜 중립인지를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사 : 나는 중립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가해자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참여자5 : 그 논리를 더 얘기하는 거죠. 중립이라고 하는 발언들이 2차 피해를 더 일으키는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것.

강사 : 일단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는 구성원을 구성원 1, 가해자를 보는 구성원 2, 중립이라고 하는 구성원 3, 침묵하는 구성원을 구성원 4라고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가해자를 바라보고 있는 구성원 2는 어떤 마음으로 가해자를 쳐다보고 있죠?

참여자1 :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하겠죠. 평소의 관계 속에서 같이 활동을 했거나 하면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강사 : 그렇다면 구성원 2가 피해자에게 느끼는 것은요?

참여자2 :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여자3 : 별 거 아닌 일로 너무 하네, 그냥 좋게 해결하지 왜 일을 키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참여자1 : 구성원 1과 구성원 2라는 그룹은 알게 모르게 나뉘지는 상황이 벌어

져요. 거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갈등이 계속 잠재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잠재적으로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 내에서 계속 있어온 것 같아요.

강사 : 묘한 기류가 느껴진다는 거죠? 긴장관계가 느껴진다?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감지는 됩니까?

참여자1 : 감지가 되지요.

참여자2 : 실제로 표출이 된 적도 있어요.

강사 :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럼 표출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요?

참여자3 : 굉장히 서로 상처받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과 말이 좀...

강사 : 뭔가 갈등상황이네요?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갈등 상황이 만들어 지죠. 지금까지 피해자, 가해자, 임원, 구성원 1, 구성원 2, 구성원 3, 구성원 4 가 각각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시선을 갖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피해자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참여자4 : 임원, 구성원들.

강사 : 피해자는 구성원 2, 3, 4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여자5 : 서운할 것 같아요.

참여자6 : 그리고 외로움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사 : 피해자가 임원이나 경영진 등에게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참여자7 : 믿죠.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강사 :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론화시킬 수 있었겠지요. 임원이나 경영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참여자1 : 스스로 가해자를 감싼다는 의식을 되게 하게 돼요.

강사 : 감싼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요?

참여자2 :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늘 가해자를 감싸는 거 아니냐는 진의를 의심받게 되고 한편으로는 징계라는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한 사람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도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해고를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쉽게 해결이 되거나 그 사람이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가 떠나도 피해자는 여전히 상처를 받고 있고, 조직 구성원들도 상처를 받는. 징계라는 것이 수위도 중요하지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강사 : 요약하면 합당한 처벌이 안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처벌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남아있는 피해자도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말씀이 맞나요?

참여자2: 그리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합리성 같은 것이 중요한데 내부에서 아까 말한 불신들 같은 것이 생기면 임원이나 경영진에게도 부담이 물리게 되고. 가해자와 한통속으로 묶여서 절차 자체가 부정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거나 치유하는 과정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강사 : 억울하시죠.

참여자2 : 네

강사 : 들어보니 억울하실 것 같네요. 경영진의 무게죠.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은 가해자가 퇴출되었는데도 피해자는 왜 계속 힘들어 할까요?

참여자2 : 퇴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피해자가 단죄를 하는 거 같이 보이면서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계속해서 자기가 조직에 부담을 준다거나 자기도 피해자인데 조직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상처를 느끼게 되고. 주변에서도 그런 피해자가 받는 상처를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가해자 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쌓이는 상태로 끝나지 않고 있는 거죠.

강사 : 징계가 끝나도 여전히 자기가 이 조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조직은 나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는 압박감을 가지고.

참여자2 :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끝냈지만 조직이 나에게 준 상처는 풀 방법이 없는 거죠.

강사 : 그런 것이 여전히 남아 있군요. 상당히 등장인물과 내용들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전체 상황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 인물들 중에서 자신의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참여자3 : 저는 구성원 4(침묵하는 구성원)인것 같네요.

강사 : 다른 분들도 각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셨나요? 나를 포함한 이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참여자4 : 아래쪽, 가해자 주변에 많이 몰려있네요.

강사 :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참여자5 : 중간이 비어 있어요.

강사 : 이 중간은 왜 비어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참여자6 : 소통의 부재.

강사 : 전체 상황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가해자 둘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갈등과 긴장관계가 발생했는지 생각해보면서 각자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가능하면 마지막 작업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황과 구도에 있는지 펼쳐본 후 나중에는 소통, 즉 서로에 대한 '풀림의 문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임원에게 듣고 싶은 말,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듣고 싶은 말, 피해자가 조합원에게 듣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는 거죠.

토론

1. 공동체 성폭력,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부터
- 나영정(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상임연구원)
2.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토론문
- 란(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3. 우리는 공유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성화(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토론 1

공동체 성폭력,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부터

나영정(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상임연구원)

90년대 말 학생운동을 통해서 운동사회와 운동사회 성폭력(해결과정)을 경험하고, 여성주의 활동을 시작한 '전형적인' 과정을 거친, 장애여성 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을 하면서 다른 공동체를 경험한, 다시 진보정당 안팎에서 운동사회 성폭력을 경험하고 여전히 그 영향아래에 있는 15년간의 조건으로 토론자의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15년간 순차적으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은 현재에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고, 어떤 단절이 있었으며,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과정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없고, 최소한 오늘 공동체 성폭력을 경험하고 해결 과정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집단적인 경험이며,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을 성폭력 사건 발생 자체도 이러한 토대에서 일어나고 해결의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한 변함없는 성폭력의 논리를 발견하고, 다각화된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욕구와 상황을 만나면서 변화를 감지하기도 한다.

공동체 성폭력은 무엇을 침해하는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정조를 침해하는 것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상당부분 이동하였다. 그런데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놓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와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에서 성폭력을 ‘젠더에 관한 폭력 vs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 사이에 논쟁을 했던 경험도 있었고, 최근에는 보다 젠더화된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한 듯 보이지만 공동체 성폭력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동체 성폭력의 경우 형사 처벌 보다 넓은 의미의 ‘처벌’과 해결을 추구하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소위 일반사회와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성원들은 공동체 안에서 진공상태로 살아가지도 않고, 공동체 내부 또한 동일한 성규범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동일하다는 상상이 비극의 시작이기도 하다), 성폭력 사건의 발생은 그동안 공동체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믿어왔던 규범(진보, 좌파, 협동, 윤리 심지어 여성주의 조차도)의 다양성 혹은 취약성이 드러나는 불가피한 계기가 된다. 그렇다고 성폭력이 무슨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시험하는 바로미터라고만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 하필 그것이 성에 기반한 폭력으로 발생하는가가 핵심적인 질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미 오염된 언어인 ‘폭력’으로 설명하기 너무나 어려운, 다양한 양태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시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면서 해석의 힘을 가지고자 노력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의식적으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성폭력에 대항해왔던 여성주의자들의 역사와 강간으로 표상되는 ‘선정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여성이 거의 유일하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성폭력이라는 주장밖에 없는 상황도 많았다.

성폭력으로 명명하기를 둘러싼 피해자의 결단과 가해자의 저항,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대리인, 그리고 조직적 절차 사이에서 줄다리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많은 경우에는 조직적 절차로 마무리 하는 것이 최대치가 된다. 상황이 점점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것은 공동체가 항상 사업에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주의의 위상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규범(진보, 좌파, 협동, 윤리 등)에 여성주의가 통합되거나 재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폭력주장=피해자중심주의=여성주의로 협소화된 경향이 있다. 발제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주의를 ‘권력자’로 느끼고 그에 대한 반격을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권력’이 드러나는 순간은 성폭력 사건이 명명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여성주의적 이슈에 부분적으로 개입하고 연대활동을 하는 공동체조차도 내부 규범으로서는 그렇다는 말이다.¹²⁾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성폭력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그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젠더권력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노력이 진행되지 않고서 남은 대안은 좁고 나쁜 의미의 ‘제도화’이거나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든다.

젠더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힘과 노력이 일어날 때 당연히 어떤 문제를 성폭력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반강제적인 선택은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나 ‘연애빙자섹스’사건이나 합의한 성애적 (연애) 관계가 실패했을 때 성폭력만이 남겨지는 방식들은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공동체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성폭력이라는 언어를 포괄적으로 써왔다. 사실 법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사법기관을 통한 해결절차 또한 무시할 수 없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공동체적 해결방식과 동시에, 혹은 선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성희롱이 공동체 성폭력으로 명명되었을 때다. 이때부터 성희롱을 성폭력으로 부르기 위한 지난한 투쟁이 시작되고, 법적으로 규정된 성폭력보다 소홀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피해자의 요구 또한 성희롱과 성폭

12) 어떤 부분에서는 여성주의 규범이 ‘교조적’으로 느껴지고, 여성주의가 설명력이 부재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맞이했던 단절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권, 퀴어, 민주주의, 윤리, 심지어 인지상정이라는 말과 접속하거나 대체했던 경험들도 있다. 여전히 그런 것들과 싸우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식의 접속과 대체 또한 유용한 자원이자 해석능력이라고 느낀다.

력 사이에 차등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공동체 징계 절차에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이지점에서 다시 질문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 성폭력이 무엇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된다.

진보정당에서 일하던 시절 ‘과도한’ 성폭력 명명으로 여성주의 ‘권력자’로 낙인찍혔던 나는 진보정당에서 나온 지 1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그들’¹³⁾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적이다. 트위터에서 사칭계정과 나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기 위한 수십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다각로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제 서야 지난 스토킹의 자료들을 모아보니 일 년에 한번쯤 삼년에 걸쳐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었다. 발제자가 제안했던 것처럼 나도 이들을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실제로 중요하지 않는 이들이지만, 이 현상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한 투쟁을 해왔다. 동시에 피해자이자 여성주의 활동가로서 ‘그들’을 성폭력 (2차)가해자로 명명하면서 내가 얻은 것과 얻어내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하기도 했다.

질문을 조금 돌려서 가해자에 선 이들이 침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숙하게 가보는 게 어떨까 한다. 공동체 내에서 형사적 해결 밖에 있는 ‘성폭력’들은 크게 관계의 실패, 농담의 실패, 여성(주의)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격을 보이는 것들이 많다. 이 질문이 성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넘어서는 이유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느껴진다. 나의 ‘그들’은 성폭력을 저지름으로써 여성주의 ‘권력’에 도전하고자 했다.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수위를 넘지 않으면서 성폭력이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저질렀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살기위해서 그렇게 했다. 성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보편화시키는 방식으로 여성주의를 무력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13)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술하게 보아왔던 공동체 성폭력, 술자리에 있었던 농담, 도발들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가해자들이 술김에, 실수로, 의도 없이, 다른 데서는 다 문제없이 통용되는 말과 행위들이라고 항변했던 그러한 행동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고 주장했던 피해자의 행동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규범과 권력을 반영하거나 뒤집고자 했던 의도와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우리가 공동체 성폭력에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거나 내부적인 합의로 해결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도와 욕망, 공동체의 규범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미 공동체성폭력 사건을 겪은 공동체들이 다시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공동체의 성격과 관계 맺는 방식과 그 안의 권력관계(성별, 이성애, 나이, 학력, 출신 등등)의 역동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와 권력의 중심이 아닌 이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발언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시간과 기회를 공동체가 허락하고 수용할 때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사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토론 2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토론문

란(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매일매일 성폭력 사건을 마주하는 요즘, 세상 살기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루가 다르게 성폭력 관련법은 달라지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대책들은 쏟아진다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지경이다. 강도, 살인자,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성도착증, 소아기호중, 음란물 소지자등의 단어는 성폭력 관련 뉴스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런데 보도되는 흉악한 성폭력 가해자의 모습과 달리 내 주변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면? 성폭력을 ‘사건화’하고 그것을 마주하고 제대로 해결하기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다.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을 사건화하고 그것을 ‘해결했다’고 치더라도 피해생존자는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화’하고 해결했는데도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피해생존자를 대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하는 ‘공생의 조건 프로젝트’는 그 문제제기부터 막혔던 문제가 풀리듯 가슴이 시원하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기존의 틀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는 기초가 되길 바라면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1. 공동체 내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특징

1) ‘성폭력 사건 해결’과 ‘조직문화 변화’ 구분의 어려움

- 공동체 내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의 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의 친밀성이 주요기제로 작동. 그러나 공동체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신뢰가 성폭력 피해 상황 뿐 아니라 사건화, 해결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 피해생존자가 공동체 내 해결을 하고자하는 경우, 피해자생존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의 일정한 자기변화를 요구. 성폭력사건을 피해자/가해자 개인 간의 문제라기보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환기시키고, 그 과정이 조직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게 됨.

- 그래서 피해생존자에게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성폭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는 구분되기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일정하게 성폭력적 조직문화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생존자가 많음.

2) 공동체 내 해결을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판단

- 공동체 내에서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생존자인 경우, 형사고소 없이 공동체 내의 해결만을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신뢰가 공동체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공동체 내 해결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인지하기 때문.
- 성폭력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뜻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공동체 내부에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생존자는 공동체 내 해결외에 다른 해결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공동체에서 피해생존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방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함.

3)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

- 공동체 내 성폭력인 경우, 공동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물적 또는 심리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 온 과정이 있어 피해생존자는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와 동시에 가해자의 이후 전망을 고려하는 양가감정을 보이기도 함.
- 이러한 감정은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사건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사건화가 되었다고 해도 피해생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함.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의 특징인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양가감정이 심리적, 정치적 부담으로 비춰져 피해생존자가 해결과정에서의 적극적 주체가 되기 어렵게 되지 않도록 공동체 내부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2. 남는 고민들

1) 모든 문제는 성폭력으로 규정?

-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는 공동체 내부 규약제정 및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동체의 모색을 이뤄냈지만 동시에 수많은 폭력적 상황과 맥락들을 고스란히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과잉적 흐름 또한 보임.

- 발제문의 지적처럼, 성폭력만 나쁜건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물론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성폭력'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언어적 한계도 존재. 그동안 여성에게는 불합리성, 불만, 불편, 어려움을 '성폭력' 외의 다른 단어로 표현해내기 어려웠기 때문.

- 하지만 모든 젠더 문제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 성폭력 사건을 통해 젠더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젠더 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 또는 확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 동시에 피해생존자에게도 자신을 피해자로 위치지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를 고찰하는 것이 사실 공동체 내 해결을 시작하는 중요한 열쇠임.

2) 공동체에 가해자는 없다?

-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력 가해자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는 가해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특정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통념은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이 '사건화'되었을 때 집단적 충격으로 나타남.
- 빠르게 피해생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절차에 따라 형식적 해결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생존자와 사건을 처리하는 공동체만 남게 됨.
-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생존자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남기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도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기 마련임. 성폭력이 '사건화'된 순간부터 가해자는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소통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통보 받게 됨. 이러한 해결 태도는 공동체 내부에 가해자를 도려내면 성폭력 사건이 해결 될 것이라는 일종의 사건 해결의 합리화를 뒷받침 하고, 가해자에게는 공동체를 탈퇴하고 사건해결 과정에서 도망치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함.
- 따라서 피해생존자의 피해와 상처에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되, 이후에 어떻게 가해자들과 공동체내에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

토론 3

우리는 공유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화(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발제자 전희경 선생님의 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자체가 고통이었다. 토론문을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 또한 속이 메스꺼울 만큼 고통스럽다. 그 정도로 운동조직의 여성 담당자들은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고통스러워한다.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가능한가?

발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폭력적 문화의 해결과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해결-가해자 징계, 절차에 따른 성폭력 사건의 처리, 2차 가

해 방지등은 노동조합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혹자는 그래서 노동조합은 조직 안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만큼 노동조합 안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

노동조합 안에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

첫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발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 안에 절차와 규정은 있지만 이것이 있는지,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이는 사건해결주체인 담당자들 또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둘째, 정파 간 갈등은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담당자가 사건해결의 의지가 있다할지라도 가해자의 정파가 다수정파일 경우 공조직의 권위와 절차, 규정 모든 것들이 무시되고 왜곡된다. 또한 성폭력 사건 해결주체가 피해자에 가까운 정파인지, 가해자에 가까운 정파인지에 따라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과 공격, 오해의 대상이 된다.

셋째, 담당자는 자신의 위치를 재판관과 동일시한다. 성폭력 사건이 조직에 보고되면, 보통 여성위원회 담당자와 여성위원회를 관장하는 해당 임원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위치를 피해자를 지지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스스로가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신력을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로부터 피해자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피해자 지지모임이 발족모임을 구성했을 때, 담당자로서 그 곳에 들어간 뒤 조직의 지도부와 내외로부터 나는 무수한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것과 객관성 사이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은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삭제되고, 성폭력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라는 조직문화가 문제다

첫째, 가해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일 수 없게 된다.

사회단체의 경우 수많은 여성주의 교육과 토론, 문화를 바꾸어내기 위한 투쟁이 지속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다르다. 수직적 체계구조와 군사주의적 문화에 대해 비판하는 문건만 나올 뿐이지 이에 대한 전조직적 토론은 진행되기 힘들다. 적어도 내 경험은 그렇다. 달력식 사업집행과 수직적 조직문화 속에서 “자, 우리한번 토론해 봅시다”는 80만 노동조합 문화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전투적, 위원장 중심 혹은 지도부 중심의 조직문화 속에서 여성주의는 탈각된 채, 진보의 필요조건이 도덕성이니, 성폭력은 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나쁜 문제니까 하면 안 되는 것 정도로 인식될 뿐이다.

때문에 지도부는, 노동조합 간부는 결코 성폭력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조합원을 이끄는 말 그대로 지도부와 간부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제소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지도부 혹은 간부를 지지하는 세력, 조합원들은 피해자를 “평소에 문제 많은 사람”으로 쉽게 왜곡해버린다.

따라서 발제자의 말대로 2차 가해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인해 그 의미가 훼손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2차 가해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우리 조직의 간부가 결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더욱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다.

둘째, 더불어 진보운동을 하는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비밀리에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조직은 이를 정말로 “비밀리”에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건은 오히려 꼬이고 왜곡된다. 그래서 발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밀리에 조직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동안 피해자는 조직으로부터 멀어지고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의 구명운동에 적극 나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가 도덕성이라 인식하는 노동조합 문화에서 조직 안에 성폭력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그 가해자로 인해 조직이나 공동체 스스로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가해자와 조직을 일치시켜 조직이 문제 있는 조직으로 대외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만약 사건이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 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동시에 이것이 비밀리에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총연맹으로 보고되었을 때는 이미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연맹이나 산하조직의 담당자는 나에게 신신당부한다. “비밀리에 진행해주세요”

덧붙여 언급하자면, 비밀리이건 공식적이건 성폭력사건은 접수되는 순간 공개될 수밖에 없다. 발제자는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러나 전시하듯이 하지는 말라고 말한다. 민주노총은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공식적 회의체계에 사건을 보고한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신의 활동보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번 보고하게 되는데, 이는 가맹산하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피해자가 속한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 운동사회의 수준이 그러하듯이 사건이 공개되면 사건은 마치 아화처럼 주변을 떠돌게 된다. 결국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것이다.

셋째, 따라서 피해자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어느 곳에서든 발생하는 피해자 유발론은 노동조합안에서 어느정도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드러내는 반응을 문제삼는다는점이다. 피해자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그 혹은 그녀가 자신의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과도한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으며 그녀의 성격이 나쁠 수도 있고, 그녀가 소위 말하는 “부도덕한 여성”일수도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평소 품성과 피해자의 평소 품성, 정치적 올바름을 들이대며 사건을 왜곡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전개된다.

그들은 결코 모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나조차도 조직문화를 바꾸어내기 위한 대안으로 체계화된 교육과 조직 내부의 지속적 토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몇 번의 사건을 진행 혹은 지원하면서 느낀 점은 매우 잘 모르지만 또 너무나 잘 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2차 가해의 의미는 알지만 그것의 논쟁지점, 피해자 중심주의의 맹점 등에 대해 가해자 혹은 가해자 주변인들은 너무나 이를 악용해 자신의 논리의 근거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발제자는 이를 백래쉬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런 그들에 대해 체계화된 여성주의 교육을 한다 해서 바뀔까 의문이 든다. 실제로 난다긴다 하는 노동조합 내 여성 활동가들조차도 자신의 정파에 가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정파를 대변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장된 여성주의로 자신과 친한 여성학자들을 동원하면서까지 말이다. 그리고 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혹은 피해자 주변인들에게도 해당된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로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성폭력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 처리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민주노총 간부들의 인식수준은 매우 낮다. 그러나, 성폭력이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점, 여성주의적 인식을 지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말 모르지는 않다. 알고 싶지 않을 뿐이고, 자신의 조직에 혹은 함께 하는 동지에게 위기가 닥칠 경우 이들은 그 누구보다 확실한 전문가로 변신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사건에 대해 ‘누구로서’ 말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이다. 문제는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임원들조차 양쪽을 잠잠하게 아무 문제없이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타협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것이 투쟁의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공감하려하지 않고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 문제다

성별 권력에 따른 모든 폭력은 조직 내에서 용인된다.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은 모든 문제를 성폭력으로 처리되길 원한다. 담당자가 이를 폭언이라 말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폭언과 성폭력 규정을 합쳐놓은 상태다. 이를 분리하려했을 때, 몇몇 담당자들의 반대가 있었다. 그것은 민주노총이 폭언과 성폭력 규정을 따로 떼놓는 순간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은 이를 따라 할테고 그렇게 되면 성별 권력에 따른 피해자들은 이를 구제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담당자가 판단으로는 분명 폭언 사건인데 폭언이라 규정하는 순간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될 것이 두려워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폭언과 폭행을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가해자에게 또다시 매우 센 징계를 내리지 않고서는 인식의 변화도 없을 거라는 점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또 그것이 전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렇게 집행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는 또다른 조직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동조합은 폭력적인 행위를 때로는 전술로 이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성별이 다른 두 활동가가 있는데, 이 둘의 입장차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입장은 결코 화해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남성 활동가가 여성 활동가에게 폭언을 한다. 그렇게 된 경우 이를 성별권력관계에 의거한 폭력이라 주장했을 때, 상황과 맥락은 배제된 채 그와 그녀의 입장 차이만 이야기 된다. 혹은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누구에게든 그래” 이렇게 정리되고 만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과연 무엇일까?

피해자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민주노총에 사건이 직접적으로 접수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의 경우 가맹산하조직에서 처리하려하다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올라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 중 간혹 담당자와 피해자, 혹은 피해자 대리인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화가 발생해 문제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뜻대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는 순간 진상조사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 사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고, 처리된다.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을 피해자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해도 이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과도하다고 말하는 순간 담당자는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진다. 중간과정에서 대리인이 있을 경우 이는 더한데, 심지어는 피해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대리인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세우는 대리인은 보통 피해자와 친한 주변인일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리인 또한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정이나 피해자 치유에 대한 지식이 전문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건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절차와 규정은 노동조합 안에서 피해자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힘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 안에 반성폭력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실종된 채 규정 문구만 남았다고 지적한다. 동의한다. 우리는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을 통해서 이를 확인했다. 절차와 규정만 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시 되지 않는 조직문화는 가해자와, 조직, 조직구성원 모두를 사건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마저 없으면 피해자는 설 자리가 없다. 노동조합은 규정과 규약에 근거해 작동하는 조직이다. 이 규정과 규약이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문구이기도 한 것이다. 누구도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일하게 가해자를 묶어둘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약과 규정이다. 흑자는 한숨쉬인 소리로 우리가 해봤자 할 수 있는 징계가 제명밖에 더 있냐고 자조한다. 우리가 피해자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규약과 규정에 근거한 가해자 징계밖에 없다는 점이다. 만약 영혼이 있는 절차를 밟기 위하여, 즉 방관자들을 잠재적 지지자가 되거나 논의에 참여하고 행동하게 되는 변화를 촉진시키려면 우리는 또다시 규약과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자발성에 근거한 논의들을 만들어내려면 성폭력사건 발생시 피해자 주변인, 가해자 주변인들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90퍼센트인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지지자/대책위/책임자들이 아무리 이를 강제한다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처 받을 수밖에 없다. 아마도 우리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규약과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실제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민주노총과 전교조에서 별도의 토론회를 4~5차례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는 가해자를 위한 변명과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場)으로 변질되었고, 우리는 이를 막아낼 수 없었다.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 아직까지 알 길이 없다.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렵다

공유된 기억을 공동체가 갖추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지금까지 접해왔던 사건들을 다시 하나하나 훑어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것은 나조차 사건이 정리되지 않고, 당시 담당자로서의 판단이 올바르게 내려졌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 조직 상황이 이를 뒷받침 못한다는 것이 담당자의 판단이다.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이 사건 백서를 제작한다했을 때, 백서 제작비에 후원비용을 지출하자 기안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기안은 결제라인에서 처리 되지 못했다. 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른다는 이유였다. 그 어떤 내용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이 담기거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길 경우 민주노총 명의가 후원자 명단에 오르

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테다. 그리고 아마 담당자가 이러한 내용을 타 단체에 토론회에 토론문으로 쓰는 것을 누군가는 비판할 것이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 조직에,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래서 나는 두렵다. 마찬가지로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 또한 두렵다. 내가 지금까지 접한 모든 사건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징계를 거부하였거나, 피해자는 고통스러워하거나 모든 과정과 절차를 밟은 사건의 가해자는 평평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나는 성폭력 사건처리의 종료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곤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조직이 과연 다 떠안을 수 있는 걸까? 우리는 과연 이런 조직문화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막막하다. 다만, 수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 감사할 뿐이다.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여성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성에 관련된
문화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에 관련된 상담, 교육, 캠페인, 워크숍, 캠프, 연구,
소모임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성의식 향상 활동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캠페인을 통해 성적의사결정능력 및 성 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교육 활동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상담원 심화 교육, 성폭력 가해자 교육, 성폭력 가해자 교육 강사 워크숍, 성교육 강사 양성 교육, 성교육을 진행합니다.

▣ 출판 활동

2011 성폭력 가해자교육 매뉴얼: 성의식 변화 프로그램

명랑성(性)생활백서: 섹스만큼 중요해!

중·고·대학생 용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활동

성폭력 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배포, 성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심포지엄 등의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1987년 생. 약칭 '민우회'.

성평등한 사회, 다양한 모습의 여성이 가능한 사회,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주의 운동단체.
때로는 세밀하고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하게,
'여성주의'의 눈으로 일상과 제도 속의 차별과 소외를 드러내고
이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생산의 연구소, 실천의 집합소.



밥 2개, 커피 3잔, 담배 4갑, 책 한권 값이면
성평등한 사회, 다양한 차이가 존중되는 세상을 함뱌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민우회회원이 되면?



1. 회원소식지 '함께가는 여성'을 격월로 만나요.
2. 온라인소식지를 통해 민우회소식을 발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3. 민우회 교육, /강좌 참가비 10%할인, 발행되는 자료 30%할인혜택이 있어요.
4. 법인세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서 회비/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요.
5. 활기찬 소모임 활동을 함께해요.
6. 다양한 문화가 있는 회원들의 독점공간 <모람세상>을 즐겁게 이용해요.
7. 차이가 공존하는 평등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가요.

*필수선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출금은행, 계좌번호, 연회비, 기탁금, 주민번호, 신청인

회원가입서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하는일: _____
주소: _____
회비약정액 ●월1만원 ●월2만원 ●연12만원 ●연20만원 ●평생회원 ●기타: _____ 원

CMS자동이체 회비납부동의서

민우회는 CMS자동이체를 통해 회비를 받습니다. CMS를 신청하시면 은행에 직접가는 번거로움이 없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 자원을 절약합니다.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주민번호: _____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우) 121-847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사무전화 02-739-8858 상담전화 02-335-1858

이메일 fc@womenlink.or.kr 홈페이지 fc.womenlink.or.kr